
Interview

청주 멘파워비뇨기과 민영기 원장

Issue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대로 알기

Forum

첫 청년의사포럼 개최

RAKU

다시 한 번 거제에서

비뇨의학과사람들



The logo for HANO DOK features the company name in a bold, italicized, teal-colored sans-serif font. A thick blue swoosh underline starts under the 'H', loops around the 'A' and 'N', and then extends horizontally under the 'DOK'.

Toviaz®
fesoterodine fumarate
prolonged release tablets 4mg and 8mg



PP-TOV-KOR-0109-Apr 2017
KR.GNL.17.03.24

KR.GNL.

선생님의 ED*환자,
BPH**증상도 함께 갖고 있습니까?

두 가지 문제. 하나의 솔루션. 시알리스® 5mg 매일 복용법.*

New Indication :
발기부전 및 양성 전립선비대증에 허가¹

CIALIS® 5mg for once daily use

Dual Benefit :

ED와 BPH 증상을 모두 유의하게 개선시켰습니다.^{2†}

Safety :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습니다.^{2,†}

가상의 환자입니다.

† 12주차 시알리스 5mg 투여군에서 위약 투여군에 비해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erectile function(IIEF-EF), total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IPSS)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은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 12주차 시알리스 5mg 투여군에서 위약투여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의 이상반응(TEAE) 발생률이 관찰되었습니다.

* ED: Erectile Dysfunction **BPH: Benign Prostate Hyperplasia

Reference 1. 니야키 소우전 5mm 구배 히기니컬(Kagaf 20

Reference 1. 시알리스®정 5mg 국내 허가사항(as of 2018-02-13) 2. Egerdie R. et al. J Sex Med 2012 Jan;9:271-281

두 가지 문제. 하나의 솔루션. 시알리스® 5mg 매일 복용법

[illegible]

Lilly

한국릴리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 LG서울역빌딩 4층 (우)04637 TEL:02-3459-2676 FAX:02-553-2360

<http://www.lilly.co.kr>



(주)한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TEL:(02)527-5114 FAX:(02)527-5001 www.handok.co.kr

전문의약품 · 오남용 우려의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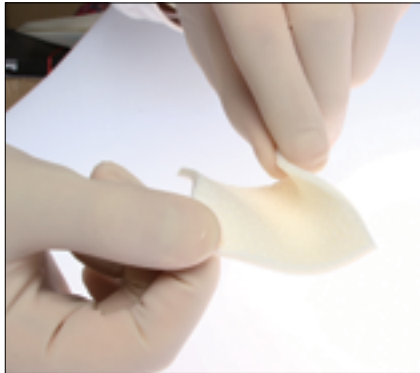
Cialis®
tadalafil tablets

KR.TAD.18.02.02
2018-1673-24 Feb 2020

2018 Autumn Vol.37

비뇨의학과사람들

2018년 가을호(통권 37호)



10 greetings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제12대 이동수 회장

12 introduce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제12대 임원 소개

16 news

소식

26 interview

청주 멘파워비뇨기과
민영기 원장

32 issue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대로 알기

38 forum

첫 청년의사포럼 개최

44 study

저장진피, 얼마나 알고 쓰십니까.

50 opinion [법률]

여의봉 단상(斷想)

52 opinion [의학]

하부요로증상의 원인별 감별 진단과
방광내시경 소견 part II

전문약품/오·남용우려약품



NEW 센글라 출시!!

Sildenafil citrate 50mg, 100mg



정제 사이즈 **40%**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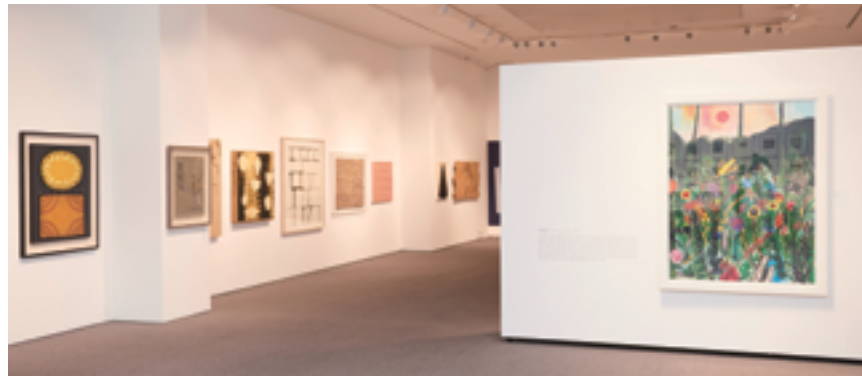
발기부전치료제 이미지 탈피한
장방형의 필름코팅정제

☎ 080-6776-080 www.ckdpharm.com

2018 Autumn Vol.37

비뇨의학과사람들

2018년 가을호(통권 37호)



60 [opinion \[비백가환\]](#)
12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62 [공감 \[공연\]](#)
깊어가는 가을,
인간 삶에 질문을 던지다

66 [공감 \[테라피\]](#)
가을, 여름의 태양을
내 안에 담다

70 [공감 \[미술\]](#)
가져 볼까?
내 그림 한 점!

76 [cartoon](#)
성병

80 [RAKU](#)
제14회 RAKU_ 다시 한 번 거제에서

86 [branch](#)
청주

 **유리토스**

For the balance of your life

- Dose Escalation 0.2mg~0.4mg
- 1st choice as add on therapy



M3, M1 수용체에
높은 친화성¹⁾



높은 방광 선택성,
낮은 구갈, 변비 발생률¹⁾



야간 배뇨 및
수면장애 증상 개선²⁾



임상시험을 통한
장기간 내약성 입증³⁾

REFERENCE 1) Masumori N, Long-term safety,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imidafenacin in the treatment of overactive bladder : a review of the japanese literature, 2013 2) M Takeda et al, Imidafenacin, a novel anticholinergic, significantly improves both nocturia and sleep disorders in OAB patients : EPOCH (evaluation of anticholinergics in patients with overactive bladder and nocturia for cared-health) study, 2009 3) Masayoshi Zaitzu et al, Evaluation of the Safety and Efficacy of Long - Term Use of Imidafenacin and Solifenacin in Patients with Overactive Bladder : A Prospective, Open, Randomized, Parallel - Group Trial (The LIST Study), 2011

[성분 및 함량] Imidafenacin 0.1mg **[효능·효과]** 절박성 요실금, 빈뇨, 요절박과 같은 과민성방광 증상의 치료 **[용법·용량]** 성인(고령자 포함)에게는 권장용량으로서 0.1mg을 1일 2회 경구투여.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내약성을 고려하여 1회 0.2mg, 1일 0.4mg까지 증량 가능 (이 약을 초기용량으로 1회 0.2mg, 1일 2회 투여하는 것에 대해 유효성 및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음) - 간장애 환자: 중등도 이상의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1회 0.1mg을 1일 2회 투여 - 신장애 환자: 중증의 신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1회 0.1mg을 1일 2회 투여 **[약가]** 391원/T (60T PTP) **[약리작용]** 유리토스정은 Muscarinic receptor inhibitor로서 방광의 M3수용체에 길항작용을 통해 방광평활근 수축을 억제함. 또한 신경말단에서 M1수용체 길항작용을 통해 신경전달물질인 Ach의 유리를 억제하여 방광수축을 억제함. **[특장점]** 1) M3 뿐만아니라 M1수용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OAB 개선 2) 높은 방광선택성으로 구갈, 변비 등의 주요 부작용 최소화 3) 64주 임상 통한 장기내약성 입증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오피 증상이 있는 환자(항콜린작용으로 배뇨시 방광수축이 억제되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3) 협우각 녹내장 환자(항콜린작용으로 안압이 상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4) 중증근무력증 환자 5) 유문, 십이지장 및 장관 폐쇄 환자. 마비성 장폐색증 환자(위장 평활근의 수축 및 운동을 억제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6) 위무력증 또는 장관 이완증 환자 7) 중독성 거대결장 환자 8) 중증 심질환 환자(기외수축 등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9) 중증의 간장애 환자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참조

발행인 이등수

간행위원장 정도린

간행위원 김재현 / 강세희 / 전계민

사무국장 김성은

Editorial Dept Editor in Chief / 이현아

Design Dept Art Director / 현영주

Photo Dept Photo / 메디컬파트너스

디자인·편집 메디컬파트너스 T.02.554.0194

발행처 대한비뇨의학과 의사 사회 T.02.6257.5700 F.02.548.6565

발행일 2018년 9월 27일

기획 및 편집 문의 메디컬파트너스 T.02.554.0194

〈비뇨의학과 사람들〉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비뇨의학과 사람들〉에 실린 글과 사진은 서면으로 된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옮겨 쓸 수 없습니다. 〈비뇨의학과 사람들〉에 실린 글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의견을 나타낸 것입니다. 〈비뇨의학과 사람들〉에 대한 문의는 비뇨의학과 의사 사회 편집국(T.02.554.0194)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6시간 타오르는

타오르

타다라필의 특징점

1. 36시간 지속되는 강력한 발기력¹
2. 3개월간 타다라필 5mg 매일 복용시 발기능력 회복효과²
3. 사용해 본 환자가 만족하는 타다라필³

정 Tadalafil 5/10/20mg
필름 Tadalafil 10/20mg

타오르의 특징점

1. 식사와 관련 없이 복용 가능⁴
 2. 구강봉해필름 제형으로 넓어진 환자 선택의 폭
 - 물없이 혀로 녹여 복용 가능⁵
 - 지갑 속에 들어갈 만큼 얇게 만든 제형⁵
- ▶▶ 복용의 편리성과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⁵



Ref.> 1. Carson CC, et al. *BJU Int.* 2004;93(9):1276-1281.

4. 타오르정/구강봉해필름 제품설명서_식약처 허가 사항.

2. Porst H, et al. *Eur Urol.* 2014;65(2):455-464.

5. Moon DG. *J Korean Med Assoc.* 2015;58(5):443-451.

3. Lee J, et al. *BJU Int.* 2006;98(3):623-629.

사랑하는 비뇨의학과 의사회 회원 여러분,

유난히 덥고 힘들었던 여름을 드디어 지나 보내고 한반도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의료계는 변화하는 정책에 바른 길잡이가 되고 의료의 가치에 무게를 더하고자 지난 여름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개개인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크고 높은 벽을 마주하고 있기에, 한 명 한 명의 힘을 모은 단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기였습니다. 뵈었거나 뵈지 못했거나 하나 같이 소중한 여러 선배·후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 지난 여름도 무탈하게 보내셨는지요.

“[비뇨의학과사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우리 의사회는 지난 여름에도 분주하였습니다. 무더위가 극에 달했던 지난 9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영남지회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청년의사 포럼”을 통해 반갑게도 비뇨의학과 개원의로 출발선에 서있는 청년 같은 동료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만나는 자리는 그 순간에도 더없이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이며, 이렇게 지면으로 다시 만나고 보니 당시의 기쁨과 행복이 더 크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없었던 여러분께서도 지면으로나마 활기찼던

당시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뇨의학과사람들]” 가을호는 특별히 의사회 안팎의 크고 작은 소식들에 더해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동료인 윤하나 선생님의 연작 원고는 의료현장에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영기 원장님의 인터뷰를 보니 도심을 벗어난 생활의 호연지기가 느껴집니다. 평소 미술품 경매에 관심을 가져 보셨던 분이라면 옥션 현장에서 전해 온 정보와 이야기가 새롭고 흥미롭게 다가갈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간행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갖가지 정보와 소식들이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가득 차 있

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2018년도 벌써 절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회 역시 한 해의 사업을 정리하고 2019년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 계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억압과 규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해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의료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안전하고 가치를 인정 받으며 성실하게 의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우리 환자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비용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에는 정치도 없고 개인의 이익 추구 또한 설 수 없습니다. 의료인의 진심이 모두 헤아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한 걸음 환자를 위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을 읽는 모든 동료 여러분의 마음이라 생각 됩니다.

오는 11월 25일 추계학술대회는 더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 학술위원회는 가을 학술대회를 앞두고 변화하는 평점 정책과 의료계 동향을 반영해 더욱 도움이 되는 학술행사로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여 모든 회원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성심으로 의사회의 회무에 희생해 주시는 여러 임원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이 지면으로라도 의사회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다른 계절에 더 훌륭한 내용으로 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회장

 올림



제12대 임원 소개



회장 이동수

고려에이스비뇨기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3 (신림동)
☎ 02) 875-6270



부회장/의무
박남일

박남일비뇨기과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296, 3층 (수성동17가)
☎ 053) 752-0220



상임이사/총무
김용우

수원헬비뇨기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억영대로 1201번길 8, 큰사랑약국 4층 (권선동)
☎ 031) 225-8275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송병주

PSI 한솔비뇨기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50 (중화산동2가)
☎ 063) 227-7575



상임이사/부총무/
보험
김대희

타워비뇨기과(여의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5 (여의도동, 아일렉스타워) 303호
☎ 02) 786-6633



명예회장
어홍선

PSI 어비뇨기과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1, 상아빌딩 2층 (상계동)
☎ 02) 930-0131



부회장/보험
이종진

프라임비뇨기과
경기 광명시 광명로 906, 현대아이타워 502호 (광명동)
☎ 02) 2689-7755



특별위원회위원장/
학술진흥위원회
서경근

유로센터서경근비뇨기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두루두루빌딩 3층 (신부동)
☎ 041) 523-0690



상임이사/재무
이민호

베스타비뇨기과(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87, 4층 (매탄동, 풍성프라자)
☎ 031) 213-0035



부회장/홍보
조규선

서울탐비뇨기과
서울 강북구 도봉로 253, 서울메디칼빌딩 4층 (수유동)
☎ 02) 946-0016



부회장/학술
정병수

스타비뇨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노티로 16, 젤존타워1차 406호(정자동)
☎ 031) 719-1366



특별위원회위원장/
학술진흥위원회
박문수

선릉탐비뇨기과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3, APEX타워 3층 (역삼동)
☎ 02) 556-4090



상임이사/
정책기획
도성훈

연세우노비뇨기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6, 강남한일빌딩 3층 (역삼동)
☎ 02) 556-8182



부회장/의료정책
김성식

연세탐비뇨기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57 (잠원동)
☎ 02) 593-8181



부회장/의무
김희열

서울S비뇨기과
서울 관악구 관악로 165 흥빌딩 702호
☎ 02) 871-7520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책개발위원회
박용진

박비뇨기과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9, 시온크리닉 8층 (둔산동)
☎ 042) 489-7177



상임이사/학술
문기혁

퍼펙트비뇨기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6, 뮤직메트로빌딩 5층 (신사동)
☎ 02) 543-9366



상임이사/학술
윤정현

연세팜스의원
서울 은평구 대조동 12-2 대흥빌딩 6층
☎ 02) 387-2755



상임이사/정보
하재성

라임비뇨기과
서울 은평구 은평로 121, 6층
☎ 02) 356-1476



시도지회장/서울
이윤수

이윤수조성완비뇨기과
서울 중구 명동9길 39, 4층 (을지로2가)
☎ 02) 779-4500



시도지회장/광주전남
고진석

고진석비뇨기과
광주 동구 갈마로 2
☎ 062) 266-3355



상임이사/보험
조정호

골드만비뇨기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20, 황화빌딩 8층 (역삼동)
☎ 02) 556-7533



상임이사/홍보
남상간

T탑비뇨기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5 성보빌딩 10층
☎ 02) 478-0100



시도지회장/인천 경기서부
김진호

마로비뇨기과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 대신스카이프라자빌딩 701호 (부평동)
☎ 032) 528-0771



시도지회장/전북
오길현

코아비뇨기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25 (고사동)
☎ 063) 284-5003



상임이사/보험
박재홍

당진굿모닝비뇨기과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로 103-8, 6층 (읍내동, 진원스타타워)
☎ 041) 358-0075



상임이사/간행
정도린

멘파워비뇨기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20 4층
☎ 041) 556-8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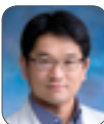
시도지회장/경기남부
이장식

이비뇨기과
경기 수원시 인계로 219 상가동 215호
☎ 031) 214-5975



시도지회장/대전충남
권경일

권피부비뇨기과
대전 서구 대덕대로 202, 타임클리닉 6층 (둔산동)
☎ 042) 486-7300



상임이사/의무
정한수

정한수비뇨기과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84 (주안동, 경수빌딩) 2층
☎ 032) 424-4500



상임이사/유통
노중석

연세백비뇨기과
경기 고양시 일산구 중앙로 1421, 농협빌딩 5층 (주엽동)
☎ 031) 911-5400



시도지회장/경기북부
이종민

삼성의원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01, 올림픽스포츠허브 B1
☎ 031) 903-5040



시도지회장/강원
최운봉

연세본비뇨기과
강원 원주시 시청로 84 (무실동)
☎ 033) 746-5667



상임이사/의무
장진석

잠실서울비뇨기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2 한빛프라자 3층
☎ 02) 425-0010



상임이사/
대외협력
유정우

타워비뇨기과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2, 그랑프리엔 207호(대치동)
☎ 02) 562-6699



시도지회장/부산경남
금학조

금학조비뇨기과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84
☎ 051) 315-3106



시도지회장/제주
강경훈

연세포르테비뇨기과
제주 제주시 서광로 175, 2층 (용담동, 아세아빌딩)
☎ 064) 724-7574~5



상임이사/의무
이지한

유쾌한비뇨기과
서울 영등포구 영종로 45, 3층 (여의도동6가, 성모약국)
☎ 02) 2679-0505



상임이사/법제
임대정

서울탐비뇨기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1 삼원빌딩 4층
☎ 02) 583-7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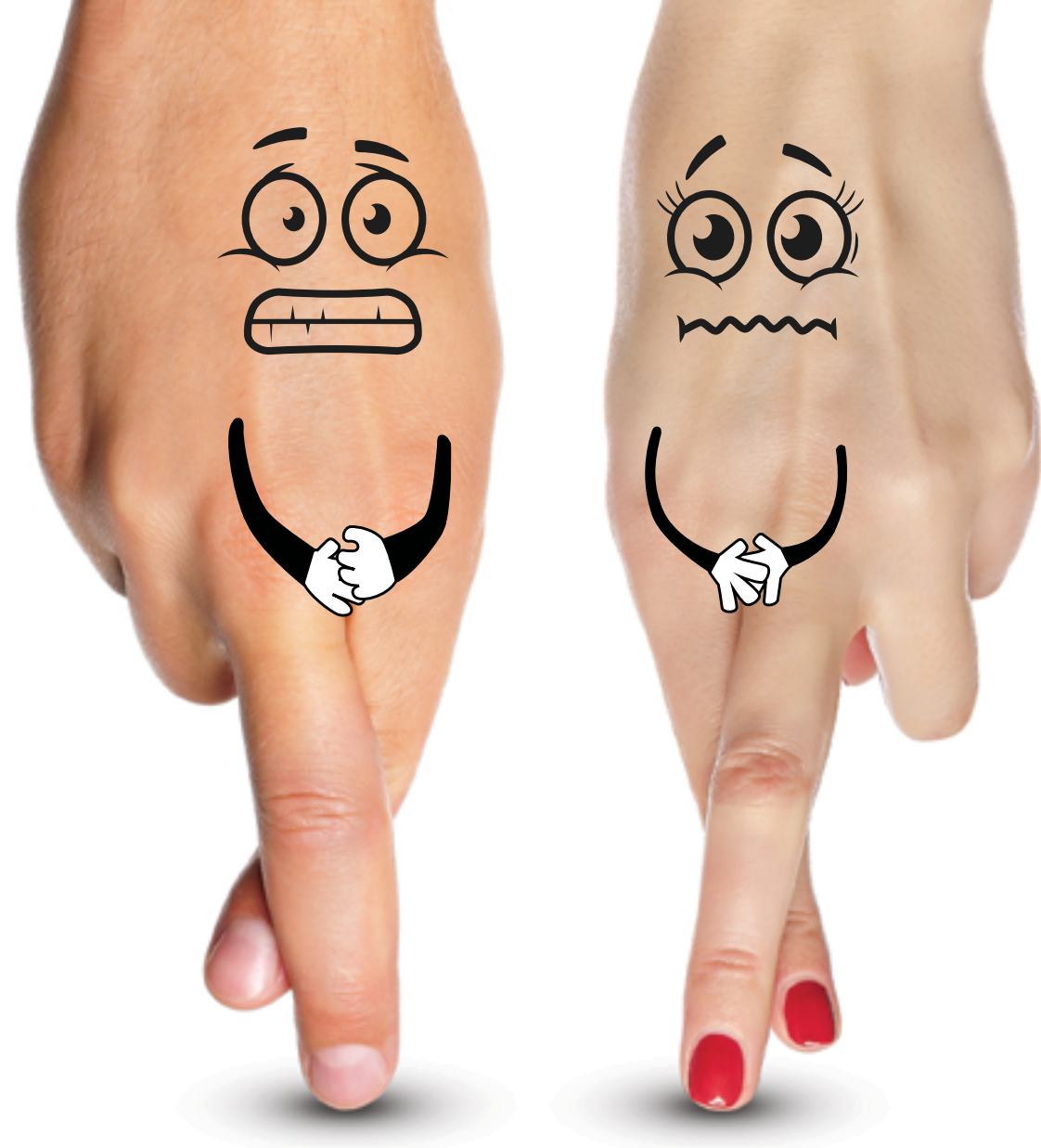
시도지회장/대구경북
윤여득

중앙비뇨기과
대구 달서구 도원로 30, 대곡프라자 305호 (도원동)
☎ 053) 639-6630



감사
김남국

김남국비뇨기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9, 보배프라자 308호 (고잔동)
☎ 031) 484-1991



과민성 방광 증상의 치료

에시캄[®]정

(Solifenacin succinate 5mg/10mg)

Prescribing Information

[성분·함량] 베시캄정5밀리그램 1정 중 솔리페나신속산염(별규) ... 5.0mg / 베시캄정10밀리그램 1정 중 솔리페나신속산염(별규) ... 10.0mg [성상] 베시캄정5밀리그램 밝은 노란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 베시캄정10밀리그램 밝은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효능·효과] 절박성 노실금, 빈뇨, 요절박과 같은 과민성방광 증상의 치료 [용법·용량] 통상 성인(고령자 포함)에서는 권장용량으로서 5mg을 1일 1회 투여한다. 필요한 경우 1일 1회 최대 1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이 약은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물과 함께 한번에 삼키도록 한다. 다음의 환자에게는 용법·용량의 조절이 필요하다. 1. 신장애환자: 경증 및 중등도 신장애환자(creatinine clearance)30ml/min)의 경우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중증의 신장애환자(creatinine clearance≤30ml/min)의 경우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며 1일 1회 5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간장애환자: 경증의 간장애환자의 경우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중등도 간장애환자(Child-Pugh 등급B)의 경우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며 1일 1회 5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강력한 cytochrome P450 3A4(CYP3A4) 저해제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 케토코나졸 또는 다른 강력한 CYP3A4 저해제(예: 리토나비어, 네피나비어, 이트라코나졸)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1일 최대용량을 5mg으로 제한한다.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 (1~30℃) [KD코드] 베시캄정5밀리그램 671705180 / 베시캄정10밀리그램 67170517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품 설명서 참조

PHARMATRONIC.CO
SERVICE & MEDICINE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4길 15-5(논현동) Tel. 02-2634-8002

경구용 조루증 치료제

타폭센[®]정

[Dapoxetine 30mg/60mg]



타폭센정 30mg, 60mg

[성분·함량] Dapoxetine으로서 30mg, 60mg

[성상] 회색의 원형 필름 코팅정

[효능·효과] 조루증의 치료

[용법·용량] 성행위 약 1~3시간 전에 초회 권장용량 30mg을 경구투여한다.

최대 권장용량은 60mg이며, 최대 투여횟수는 24시간 이내에 1회 초과하지 않는다.

[비급여코드] 타폭센정 30mg (671704920), 타폭센정 60mg (67170469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참조



PHARMATRONIC.CO
SERVICE & MEDICINE

1 제12대 6차7차 상임이사회

지난 7월 16일 6차 상임이사회에서는 각 부 위원회별 회무 보고를 시작으로, 비뇨의학과 개명 안내 포스터 제작에 대한 경과보고, 청년 비뇨의학과 의사 포럼 진행상황,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대상질환 확대추진 협의체 회의 및 약제비 종별 차등적용질환 확대회의 보험부 보고 및 토의가 있었고, 9월 17일 7차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원의 분쟁사례집 제안건, 비뇨의학과 전문의 근로 실태 설문조사, 제14회

RAKU 영남지회 및 청년 비뇨의학과 의사 포럼 보고, 9월 28일 의료법 개정안(의료광고) 시행건, 임상연구 심의건,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언론상 제정-세부 논의, 시사저널 및 중앙경찰서 질의에 대한 보고, 추계학회 필수이수과목 평점에 대한 토의, 산정특례환자(암환자) 진료시 타질환의 산정특례적용 여부와 외과계 교육상담료 협의체 회의, 약제비 차등적용질환 확대 실무협의체 회의, 교육상담 프로토콜 심의위원회, 상대가치 위원회 회의 등 보험부에서 참석한 회의 내용보고 및 PCR 및 진찰료, 만성질환관리료 등 청구 및 고시관련 회원 홍보 토의 및 간행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의결이 있었다.



고민되는 의료분쟁,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례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사례는 책자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
(가제)으로 제작돼 회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 ▶ 환자와의 갈등 ▶ 의료 분쟁
- ▶ 의료사고 ▶ 형사 고발 등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제출되며,
해당 사례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료 보내실 곳

비뇨의학과 의사회 법제이사 임대정
pureal@naver.com / 010-2515-4423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필수과목 평점이수 정책이 달라집니다.

▶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일자 2018.1.1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 필수과목 이수 평점 : 2평점 (2시간)

1. 평점 인정 기준 : 실제 60분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2. 필수과목 채류 시간이 60분인 경우 1평점, 채류 시간이 120분인 경우 2평점 인정
(강의시간 엄수)

▶ 면허 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합계 총 24평점] 중 [2평점] 을 필수 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1. 모든 의사의 연간 이수 평점은 : 8점/년
2. 2019년도 (1.1~12.31)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 (2시간) 을 이수해야 함
(2016/2017/2018 : 직전 3개년도)

▶ 필수과목의 종류

1. 의료윤리
4. 의약품 부작용 사례

2. 의료법령

5. 의료분쟁사례

3. 의료감염관리

▶ 필수과목 교육기관

1. 16개 시도 의사회
2. 61개 학회
3. 특별기관 23개 기관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각 산하 의사회)

→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11월 25일(일)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더케이 호텔, 양재동)

필수평점 교육이 총 2시간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협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필수과목 이수 평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협회비 미납하신 경우 [직전 1개년도 회비]만 납부해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의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ma.org>) → [KMA교육센터] 클릭 → [사이버연수교육] →

[필수강좌] 에 로그인 해서 보시면 잘 되어있고,

교육 후에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 하셔야 평점이 부여됩니다.

달라진 필수과목 연수교육, 질문있어요!!

1. 필수평점은 3년간 2평점을 이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2평점씩 이수해야 하나요?

→ 의사면허 신고가 매 3년마다 이므로 [총 3년중에 2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매년 2점 아님)

2. 2019년 신고부터 해당되니 내년 춘계학회부터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2016/2017/2018 3개년 간의 연수평점이므로 올해 안에 이수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일자가 2018.1.1 이고,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평점은 면허신고 해당년도로부터 [직전 3년간] 평점이 해당하므로 2018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5/2016/2017] 총 24점이고 필수교육평점은 필요 없습니다.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6/2017/2018] 에 2018년이 포함되어 있어서 필수평점 2점 필수입니다.

학술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면허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보면 원칙은 매년 8점 이상 총 24점이 요건인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마지막 3년차에 몰아서 24점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져서 보건복지부에서 클레임을 걸면 신고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의협에서도 보호하기가 어려우니 가급적 미리 이수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연수교육, 면허신고 대상자 ‘요주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은 의사면허를 획득한다. 의사면허는 정기적인 면허신고와 함께 일정 평점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매년 8평점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갱신은 3년마다 이뤄지게 된다. 만일 신고를 누락하거나,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수평점은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 60분당 1평점이 부여되는데, 이때의 강의는 순수한 교육시간 50분에 10분의 질의응답까지 인정된다. 보통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여러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데, 이때 하루 최대 6평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평점 이수와 관련된 과목에도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데, 의학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단일과목으로 이수하면 평점이 불인정될 여지가 있다. 또 2시간 이하의 교육에는 1시간의, 3시간 이하의 교육에는 2시간의 임상 및 기초교육이 포함돼야 한다.

연수교육 전반을 지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연수교육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연수교육 현장의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팀을 운영하는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온 것이다. 연수교육 시 출결관리는 바코드나 지문인식 등

자동출결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거나, 참석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점인정은 총 승인평점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1~3점짜리 교육인 경우에는 총 2회 이상의 출결 확인이 돼야 한다. 4~6점짜리 교육은 체류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경우 평점을 승인받지 못한다. 이후 2시간~3시간은 3평점, 3시간~4시간은 4평점, 4시간~5시간은 5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6평점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교육 장소에 5시간 이상 체류해야 한다.

연수교육에 참여한 모든 의사는 각 교육기관의 연수교육 실시 결과보고가 마무리됐다는 전제 하에 연수교육이수확인서, 연수교육이수내역확인서 등을 KMA 교육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MA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이버강좌나 자율학습 등으로 연 최대 8평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데, 이때는 평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강좌 수강 후 테스트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2019 면허신고자부터 필수과목 이수 의무 적용

의협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시행된 연수교육은 약 5000건, 승인받은 평점은 연간 131만5167점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도 8점 이상 연수평점 취득으로



의사면허를 갱신한 회원은 90.3%였다. 의사로서의 자질을 유지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 아래 의협은 연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는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방침을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필수교육 이수 의무화’는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한 것으로 특정 필수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교육지침이다. 지난 1월 도입된 ‘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방침에 따르면,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올해 필수평점 2평점을 획득해야 한다.

의협은 △의료윤리 △의료감염관리 △의료법령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분쟁 사례 등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필수과목을 면허신고 때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했다. 필수과목의 이수 평점은 2평점으로 이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120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신고자의 경우 직전 3년 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2019년도 신고 대상자부터 필수과목 이수 여부가 기준이 되니 주의가 요구된다.

필수과목은 의협이 지정하는 필수과목 교육기관만

의협, 연수교육 출결
관리 강화할 것

면허신고자는 필수평점
2평점 이수해야

개설할 수 있다. 의협이 지정하고 있는 16개 시도 의사회와 61개 학회에 더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산하 의사회 등이 지난 3월부터 필수과목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추가됐다. 의협은 필수과목 이수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하루 최대 2평점까지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연 최대 4평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교육기관의 정식 등록 산하 단체를 제외한 기타단체의 교육을 대리 및 위탁 신청한 교육은 평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의료광고, 9월부터 사전심의 부활

심의 후 광고 유효기
간은 3년

정부 아닌 의협 사전
심의 '차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9월부터 부활한다. 의사 개인은 물론 의원이나 병원 등의 의료기관 및 기관 개설자 역시 심의 대상이 된다. 오는 9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지난 3월 27일 개정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것으로 매체를 활용한 의료광고에 있어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를 제외한 모든 내용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골자다.

심의 대상이 되는 광고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되는 광고나,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또 전광판이나 인터넷매체(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되는 광고 등을 포함한다. 이 같은 광고에 △명칭·소재지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 종류 △의료기관 개설자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 기본정보를 제외한 내용이 다뤄질 경우 모두 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사전심의 제도는 앞서 2015년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심의 주체가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행한다. 이 같은 절차로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원활한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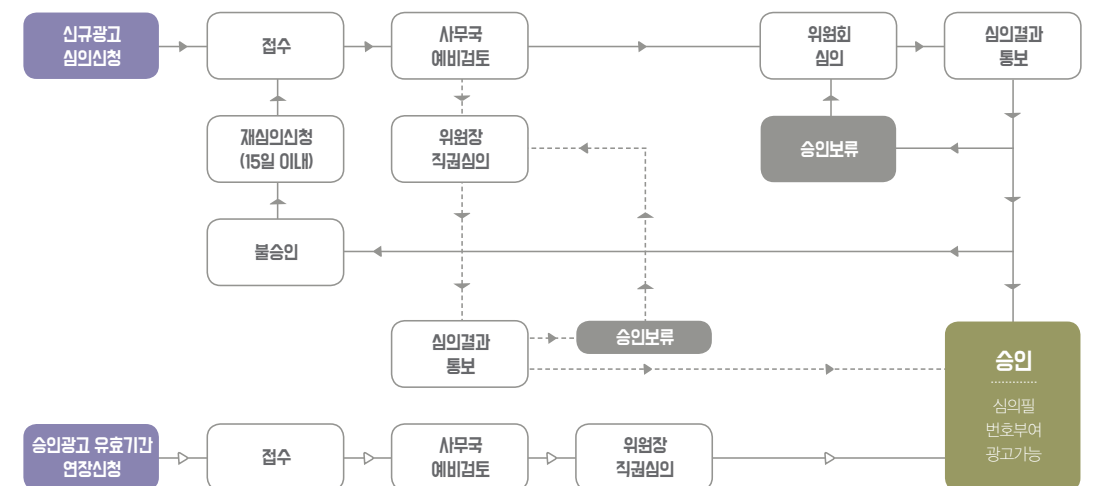
변경된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집행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의협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로 인해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뢰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의 신청을 할 때는 집행하고자 하는 광고시안과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등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료광고 심의,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1 ——— 사전 심의 대상이든 아니든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모두 적발. 위법적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주세요.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 NO(사전 심의 대상이 아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 YES(사전 심의 대상)
- 2 ——— 앱 광고 심의 받으세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광고 심의 대상입니다. (ex 강남미인 등)
- 3 ——— 심의 제출시에는 개설신고서를 따르세요.
개설신고서에 비뇨기과위원으로 돼 있으면 '비뇨기과의원', 비뇨의학과위원으로 돼 있으면 '비뇨의학과의원'입니다.
- 4 ——— 접수번호를 확인하세요.
광고 심의 폭주로 인한 결과 지연? 접수 번호가 있다면 일정 기간까지 결과 받지 못해도 번호 받을 수 있습니다.
- 5 ——— 가급적 모든 광고물은 사전 심의를 받으세요.
홍보용 판촉물(ex 물티슈, 메모지 등), 전단지, 버스 내부 광고



Reference: 1. ANDRIOL prescribing information, MSD Korea. 2. Wang C. et al. ISA, ISSAM, EAU, EAA and ASA recommendations: investigation, treatment and monitoring of late-onset hypogonadism in males. *Int J Impot Res*. 2009;21(1):1-6.



ORI  INAL

우수한 효과와 경제적인 가격으로
돌아온 오리지널 **자이데나**®

ZYT-16D003

Power Original
발기부전치료제
Zydena

집을 지어 올리듯 삶을 쌓아 올리죠

의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름대로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삶, 하지만 개인의 시간을 오롯이 독립시키기는 어려운 삶일 수도 있다. 더욱이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긴밀하게 마주해야 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도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각자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 삶의 방식을 선택할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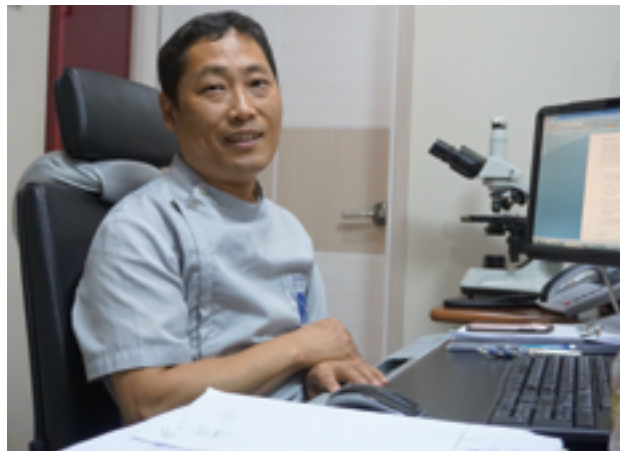
청주 멘파워비뇨기과 민영기 원장은 벌써 십수 년 간 비슷한 자리에서 비뇨의학과 개원의로 근무 중이다. 진료의 분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 만나는 환자들의 양상도 비슷하다. 그의 진료는 단순하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다. 그의 진료실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는 환자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며, 그 관계가 의심할 나위 없는 신뢰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가 자신의 일에 임하는 태도이다. 환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는 변함없이 의사로 자리하고자 한다. 치료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의술이 가지는 가치를 잊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그런 의사 말이다.

글·사진/ 이현아



사진/ 민영기 원장님 제공





청주의 집 짓는 의사

인터뷰는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갔다. 청주 지역에 직접 집을 짓고 유유자적하게 사는 비뇨의학과 개원의가 있다는 소개로 무턱대고 찾아간 날에 민영기 원장은 별다른 준비도 없이 취재진을 맞았다. 평소 호기심이 많고 부지런한 민 원장은 수년 전 직접 터를 잡고 설계를 공부하며 손수 자택을 지어 올린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된 인터뷰는 물흐르듯 진행됐다.

“누구라도 그림을 그릴 수는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생각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더 자세한 부분에까지 관여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처음 집을 지어올리기 시작한 시기를 떠올리며 민 원장의 목소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대문의 모양과 소재까지 직접 실측해 꾸밀 정도로 열정적으로 참여한 집짓기는 거의 반년에 걸쳐 진행됐다. 이미 그 집에서 수년째 살고 있지만 아직도 집짓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건물 한 채 올린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민 원장은 틈틈이 마당을 넓히고, 나무를 심고, 뒷채를 올리며 집짓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마당의 풀을 뽑는 민 원장의 다리에는 작은 생채기들이 가득하다.

“지방의 집 한 채라고 해봐야 서울의 으리으리한 아파트들처럼 비싼 것도 아니고 여느 건축가가 지은 것처럼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직접 지어 올려 한 해 한 해 손때를 묻혀 고쳐나가고 있으니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마치 대단한 기술을 들었거나 엄청나게 큰 비용을 들인 것처럼 여겨질까 봐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전문적으로 기술을 갖고 집을 짓는 의사가 아니라, 호기심이 많아 집 짓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의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유난히 호기심 많은 민 원장은 한 가지에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몰두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다만 집 짓는 일만큼은 벌써 수년째 질리지 않고 민 원장의 열정을 사로잡고 있다. 한번에 완성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새록새록 새롭게 손볼 곳이 나타나고, 그 결과물을 주거라는 형태로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와 둘만이 지내고 있는 공간이지만, 최근에는 각지의 지인들을 초청해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 그 나름의 손 볼 곳들이 생겨난다고.

“늘 같은 풍경 같아도 지난 해와 비교하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마당의 숲을 보더라도 지난 해에는 이렇게 낮았던 나무들의 높이가 올해는 부쩍 올라가 있죠. 그런 작고 소소한 변화들을 날마다 느껴요. 어떤 때에는 도시의 선생님들이 부럽기도 해요. 매일매일 약속이 있고, 진료에 꼭 필요한 정보들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진료에 대한 생각은 잊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집에서 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조용하고 한적하게 관계를 지어 올리다

수도권과 비교할 때 유난히 크고 쾌적한 병원 내 풍경이 취재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방에서 병원을 하다 보니 서울보다야 공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내원하는 환자



“진료실은 환자와의 신뢰가 쌓이는 공간”

청주 멘파워비뇨기과 민영기 원장이 사는 법

INTERVIEW

나는 의사다



분들이 점잖은 분들이어서 별로 실내를 어지럽힐 일도 없다”는 민 원장의 설명은 유쾌하고 단순하다. 남성 비뇨기 진료와 남성수술을 주로 하는 민 원장의 진료 패턴은 거의 일정하게 짜여 있다. 수요일 오전에는 본인의 불일도 좀 보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말은 되도록 쉰다. 토요일 수업이 있던 시절의 학생들처럼 토요일 점심 무렵부터 마음이 쉴렌다는 민 원장. 토요일 귀가 후에는 집안의 대소사를 점검하고, 최대한 비어 있는 상태의 일요일은 맞는다는 것이 민 원장의 가장 큰 낙이다.

“토요일엔 마당에 풀을 뽑거나 집안 여기저기 손 불 곳들을 정리해요. 가족행사를 치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마무리하고 나서 토요일 저녁엔 맥주라도 한 잔 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일요일에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죠. 무엇인가 대단히 힘들고 몸을 쓰는 일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가깝거나 멀거나,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 떠나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저와 아내가 아주 좋아하는 일과예요.”

교사로 근무 중인 아내와 민 원장은 특별히 죽이 잘 맞는 한 쌍이다. 지방에 자택을 직접 짓고 관리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아내의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터.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 형태의 삶을, 특별히 돈에 연연하지 않고 보금자리를 꾸며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는 삶을 함께 선택해 준 것이 민 원장의 아내다. 어떤 관계에 있어 말하지 않아도 속내를 알 수 있고 뜻을 함께 해 주는 관계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부부 관계 뿐 아니라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관계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부끄럽지만 환자가 많은 병원은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해요. 환자가 없을 때는 집에서 할 일을 정돈하기도 하고 여행 계획을 짜기도 해요. 어떤 때는 환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1시간이 훌쩍 넘길 때도 있어요.



환자와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중요하죠. 환자가 그 순간에 제 마음이나 의중을 모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이어져 언젠가 그 환자 분께 가장 신뢰할만한 의사가 된다면, 그런 환자가 한 명만 있더라도 좋은 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병원에서는 환자가 본인을 믿고 신뢰한다는 확고한 의식이 민 원장에게는 언제나 에너지가 된다. 물론 모든 의사가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진료에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진료에

임하는가, 그리고 그 생각들이 진료에 있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가가 말하자면 민 원장이 진료를 통해 집을 짓든 쌓아 올리는 가치들이다.

“환자들에게는 늘 솔직하자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상처 받지 말자고,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히 쌓아올리는 하루하루가 민영기 원장의 진료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대로 알기

지난 5월 18일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자나 마약류 취급을 승인받은 자가 모든 취급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급내역 보고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구분·관리 등이 있다. 달라진 시스템에 따라 '중점관리품목'으로 구분되는 마약과 프로포폴은 모든 취급 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된 향정신성의약품도 취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글/ 이현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대상

- 1)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 마약류취급자가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 2)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 마약류취급자가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중점관리대상을 제외한 경우)
 - 마약류취급자가 동물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경우와 인체용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원료사용자·예외적인 취급승인 받은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승인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보고방식

마약류 보고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보고하거나, 의료기관의 내부관리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 보고하는 방식이 있다. 앞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속해 안내를 따르거나, 별도로 작성된 양식을 기재해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시스템을 연계하는 두번째 경우는 별도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지만, 우선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전산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마약류 관련 보고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보고하는

항목이 달라진다. 시스템 운영 대상은 마약류 수출입업자부터

학술연구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중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는 양도보고, 양수보고, 구입보고, 폐기보고 등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조제와 투약에 관한 내용도 보고 항목에 포함된다.

보고기간

보고기간은 대상이 되는 약품이나 보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1) 대상이 **중점관리대상**에 속한다면 보고 시점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전상장에 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사유 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가 완료돼야 한다. 이때 보고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를 취급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해야 한다.
- 2) 대상이 일반관리대상에 속한다면 수출·수입·제조 등에 대해서는 취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입·판매·조제·투약·사용·폐기·양도·양수·원료사용·위수탁 입출고 등에 대해서는 취급한 날의

취급자별 취급보고 유형

취급보고 유형	의약품 취급자						의약품 취급보고
	수출업자	제조업	한의약품	도매업	소매업	의약품	환상업자
수입보고	●						
수출보고	●						
제조보고		●					
환수식		●					
입출고 보고							
한의약품 보고			●				
판매보고	●	●		●			
입고보고	●	●	●	●	●	●	●
양수보고	●	●	●	●	●	●	●
구입보고			●	●	●	●	
조제보고				●		●	
투약보고						●	
시용보고	●	●	●				●
폐기보고		●	●	●	●	●	●

● : 해당센터에서 있는 의약품에 경우 조제되고 가용한, 별다른 약품도 투약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마약류관리법」(이하 관리법)에 의거해 마약류를 취급해야 하는데, 이때 관리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일 사고마약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인지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사고발생경위를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고

[illegible]

① 사고마약류(파손)	② 사고마약류(변질·부패)
③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④ 유효기한 임박
⑤ 사용중단	⑥ 잔여마약류
⑦ 폐업	⑧ 환자반납
⑨ 기타 [사고마약류(도난·분실·재해) 발생보고 원료 건, 1정 미만 경구제 '사용후 폐기' 건, 제조공정 중 폐기물]	

- 1) 재해 :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확인서류 첨부
- 2) 분실, 도난 : 수사기관 확인서류 첨부
- 3) 변질, 부패, 파손 : 해당 없음

「미약류관리법」
주요 준수사항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권고사항

- 35

- 마약류 저장시설을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이나 잠금장치의 파손이 어렵도록 조치 (※ 마약류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는 무인경비장치, CCTV 등 설치 권장)
- 냉장보관 등 특별한 보관조건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운송 중 마약류가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운송차량 저장시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운송차량의 문, 마약류 저장시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함
-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운송담당자로 정하고, 가능한 한 복수의 인원이 운송
- 차량 내부의 마약류 저장시설과는 별개로 운송차량의 문은 잠금장치 (자동잠금장치 포함)가 있어야 하며, 항상 잘 잠겨진 상태여야 함
- 조제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의 경우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
- 병원 내 마약류 운반 시 파손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방안(탄력 있는 받침대 사용 등)을 강구하여 조치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4인 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행정취급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이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할 수 있다. 취급자는 마약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1) 입고: 마약류 입고작업은 다른 의약품에 우선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품명,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한, 수량 등 구입정보를 보고하면 된다.
- 2) 보관: 마약과 향정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하는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이동이 불가능한 철제금고에, 향정은 이동이 불가능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반품, 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약품은 별도

저장시설을 갖춰 관리한다.

- 3) 투약: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또는 진료기록부)에 의해 환자에게 투약하는데 이렇게 투약한 품목정보, 환자정보, 처방정보, 수량 등은 모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보고 돼야 한다.
- 4) 잔여 마약류 관리: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잔여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폐기 대상이다. 이는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폐기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보고할 때 ‘사용 후 폐기량’란에 해당 내역을 반영한다.
- 5) 마약류 반품 등 양도·양수: 반품, 거래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할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양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수자는 해당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거래한다. 양수자는 양도된 마약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보고돼 있는지 확인하고 양수 후 양수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양수보고는 최소유통단위별 의약품 표준코드·일련번호·수량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개봉된 날개 의약품을 양수했다면 의약품 표준코드·수량을 기재하면 된다. 만일 날개 의약품의 포장에 없어 의약품 표준코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의약품 대표코드와 수량 등을 기재하면 된다.

기타 참고사항

- 1) 수거용 마약류: 마약류감시원이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수거해 간 마약류에 대해서는 ‘기타출고 보고’에 입출고 구분을 ‘수거용’으로 설정하고, 상대 거래자·물품정보(마약류 취급자 식별번호, 수량, 제조번호 등)를 상세히 기재해 보고한다.
- 2) 바코드 훼손: 구입보고시 바코드 태그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판매자로부터 판매정보를 확인한 후 ▶구입보고 ▶양도승인 신청 ▶양도보고 등의 순서에 따라 보고한다. 투약보고나 양도/양수보고, 폐기보고 단계에서 바코드 태그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재고조사 등 훼손된 일련번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수량이 너무 많아 즉시 확인이 어렵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일련번호를 임의 생성한 후 미사용(훼손) 일련번호 잔여재고와 임의생성 일련번호 부족재고를 조정하면서 처리하면 된다.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첫 청년의사포럼 개최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가 개원 노하우를 전하는 2018 청년비뇨의학과 의사포럼을 성료했다. 의사회는 60여 명의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노하우 및 최신의학정보를 다루는 첫 공식 행사를 9월 8일 오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수 회장 등 이미 수년간 성공적으로 개원 이력을 갖고 있는 시니어 개원의들과 개원 후 1년 미만의 신규 개원의나 개원을 계획 중인 개원 예정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비뇨의학과는 초유의 전공의 부족 사태로 인해 개원병원 축소 경향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에 의사회는 개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의사회의 참여를 높이고 회원 역량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글/이현아 사진/조은선





이례적인 개원 노하우 공유의 장

개원가는 각자의 개원의들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원 노하우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대한비뇨의학과 의사사회는 이례적으로 신규 개원을 독려하고 개원 이후에도 실패 없는 성공적인 병원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8 청년비뇨의학과 의사포럼을 마련했다. 취임 전부터 ‘청년의사포럼’(가칭)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행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온 이동수 회장은 이날 행사장을 직접 찾아 참석자들을 독려하는 한편, 본인이 직접 비뇨의학과 지원 및 개원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행사에 힘을 실었다.

이동수 회장은 “우리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미달, 의료급여 청구액 최하위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행사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여러 대에 걸친

사업들을 통해 회원들의 단합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발전하고 화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련했다”며 “제1회 행사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 후 내년에 더 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행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비뇨의학과 개원가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비뇨의학과 진료의 특수성과 전문성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주제의 무게를 더했다. 행사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의무부 김희열 부회장은 이날 본인이 직접 연자로 참여해 개원 노하우를 전하는 등 활약했다. 김 부회장은 세미나 종료 후 참석자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비뇨의학과 진료로도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며 “비뇨의학과 진료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다른 진료 영역을 별다른 고민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과도한 비용 투자로 더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병원 입지부터 구조까지 해본 사람만 아는 꿀팁 ‘한 팁 줍쇼’

이날의 행사는 무엇보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현실적이고도 유용한 정보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희열 부회장은 “개원의 입지부터가 분양을 받을 것인가, 월세를 할 것인가의 선택”이라며 “월세가 분양보다 비싸겠지만 분양으로 결정을 한 이후에는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폭이 좁다”며 선택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입지를 선정할 때 경쟁을 우려해 굉장히 잘 되는 병원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잘 되는 병원의 주변을 꼼꼼하게 분석해 이점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동수 회장은 계약서의 중요함에 대해 언급했다. 세션1의 좌장으로 나선 이 회장은 “계약서를 쓸 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직원과의 계약서도 그런데, 나는 모든 부문에 다 계약서를 쓰자는 주의”라고 본인의 의견을 전했다. 이 회장은 “아주 나쁜 경우겠지만 만일 직원이 고발조치를 하는 등 (병원)에 악의적으로 굴 때 이 문제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형식적인 근거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서”라고 실질적인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충북 청주의 청주연세비뇨기과 김용수 원장은 성공적인 개원 준비에 대해 항목별로 꼼꼼한 정보를 전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원장은 수개월 전부터 입지와 내부 구조,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한 후 10월 개원 시기로 잡고 이보다 1개월 앞선 시기에 가개원을 해 개원 준비에 그 누구보다 품을 많이 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병원 직원들과 미리 개원을 함께 준비하면서 소속감을 높이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정립했다”며 “11월부터 환자가 늘어나는 비뇨의학과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 후 10월 개원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자주 변하는 병원 시설물 규정에 대해



의료기관장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내 기준은 물론 까다로운 해외 규정까지 고려해 내부 설비를 준비했던 본인의 경험을 전했다. 김 원장은 또 병원 홍보에 있어서도 하드웨어는 비용과 품을 들여 신중하게 고르더라도, 소프트웨어는 언제든지 손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다루기 쉽고 저렴한 비용의 방식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홍보 스티커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생수 등에 부착해 내원객들에게 선물하는 방식은 현장에 참가한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각자의 개원 경험을 토대로 개원의 노하우를 전한 세션1에 이어 자유롭게 활발하게 현장의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토포세션이 마련됐다. 또 공식 프로그램 이후에는 그룹별로 나눠 앉아 보다 긴밀하게 궁금증을 문의하고, 선배들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한팁줍쇼’가 이어졌다. 박남일 의무부회장은 “오늘 발표자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개원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가 일반적인 개원의들에게는 다소 무리한 목표가 될 수 있다”라며 “수익이나 환자수에 대한 수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개원에 대한 접근 방식과 미처 놓칠 수 있는 노하우 등에 주목한다면 누구든 개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장진피, 얼마나 알고 쓰십니까.



김재현
알파비노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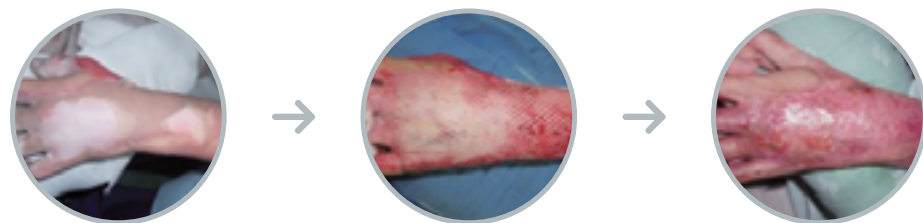
저장진피는 표피층과 진피 내 세포를 제거한 후 동결 건조한 조직으로 동종과 이종으로 구분되며, 동종의 경우는 인체에서, 이종은 동물(소, 돼지 등)에서 유래한다.

저장진피의 역할

저장진피는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표피와 진피에 있는 세포들을 제거한 후 급속 동결 및 건조시켜 만든다. 이는 면역학적 반응이 없는 상태에 섬유아 세포의 유입, 신경, 혈관 재생성에 필요한 골격을 마련해 주는 역할로 환자 에게 이식했을 때 혈관이 재생되고, 자기 본연의 조직이 된다. 따라서 저장진피는 피부 혹은 연조직 결손의 회복 혹은 음경의 확대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저장진피 사용의 적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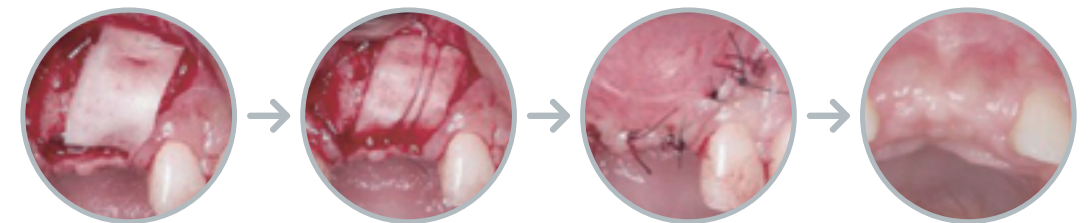
- 1) 화상이나 교통사고 등의 재해로 피부가 결손된 환자들에게 이식 가능하다.



- 2) 피부 함몰부위를 확대 복원할 수 있도록 Demal Matrix를 두껍게 한 제품은 접거나 말아서 사용할 수 있다.



- 3) 치과에서 생착형 차폐막으로 잇몸재건용으로 시술이 가능하고, 심미적인 목적으로 잇몸을 Augmentation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



- 4) 비뇨의학과에서는 선천적 음경왜소증 환자 및 상대적 음경왜소 콤플렉스 환자들의 음경확대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자가진피 이식만큼 안전한 수준으로 성장

다양한 부위의 피부 재건에 사용

효과적이고 안전한 음경확대 재료로 사용



저장진피의 안전성

저장진피는 기증자 혹은 동물의 병력, 사회활동, 미생물학적 및 면역혈청학적 검사 등의 여부와 결과를 통해 안전한 조직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국내 한 제품(동종진피)의 경우 조직의 안전성, 기증자의 혈액검사결과, 조직의 세균학적 검사결과, 원재료 선별 및 적합성 판정 결과, 원재료 연령, 조직 채취 시간제한 초과여부 등을 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장진피를 제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재료를 엄격한 기준 아래 선별한 후 청정실 무균작업대에서 조직에 대한 전처리 작업을 실시한다. 여러가지 가공용매를 이용해 제품의 가공과 동시에 미생물 및 바이러스 불화성화 작업을 거치며, 세척용액으로 충분한 행균과정을 통해 사용되었던 용매를 완벽하게 제거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E-Beam으로 최종멸균 후 호기성, 혐기성 및 진균검사 등의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성이 검토된 제품은 환자 자신의 자연조직 일부가 됨으로써 건강하게 생착할 수 있으며, 거부반응(염증)이 없다. 항원 반응이 없기 때문에 피부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하는 두께로 접거나 말아서 사용할 수 있다. 완전히 생착된 후에는 이물감을 느끼지 않는다.

저장진피 이식을 통한 음경확대

음경왜소증이란, 발육과정에 있어서 음경에 문제가 있거나 선천적 원인에 의해 성년이 되어도 정상적인 크기로 자라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 해부학적으로는 음경의 길이가 4cm 이하일 때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경우보다 아래의 3가지 이유에 의해 음경확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임상에서 자주보는 음경 확대의 유형

- ① 음경이 작아 직장동료와 사우나나 목욕탕에 같이 가지 못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음.
- ② 부부생활시 음경이 작아 부인이 불만을 느끼고 있었음.
- ③ 아들이 성장하는데 상대적으로 남자로서 음경이 작아 위축이 되는 등.

위와 같이 음경왜소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경확대술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도입돼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방법이 자가 진피지방 이식술이다. 자가 진피지방 이식술은 자신의 피부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자연스럽게 생착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진피를 떼 온 부위에 흉터가 남고 통증이 수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많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식한 자가진피이식을 제거해야 하는 부작용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이식술을 시행해야 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가진피 이식술의 문제점 및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는 자가진피를 이용한 이식술 보다는 저장진피를 이용한 이식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음경확대수술의 수술재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저장진피는 동종과 이종으로 구분되며, 동종의 경우는 인체(사람)유래 저장진피이며, 이종은 동물 유래(소, 돼지 등) 저장진피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저장진피 이식 후 주의사항

1. 음주

술은 남성수술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수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수술 후 2주 후 실밥을 풀게 되는데 그 2주 정도는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다. 술은 감염이나 염증수치를 높이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이므로 피해야 한다.

2. 무리한 운동

수술 후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수술 부위의 붓기가 오래갈 수 있다. 따라서 약 2주 정도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운동이 필요하면 가볍게 상체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하체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성생활

진피를 이식한 수술의 경우에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안전하게 자리잡게 된다. 그런데 그 전에 성생활을 하게 되면 수술 시 이식한 진피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또한 이식한 위치가 틀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성생활은 되도록 진피 이식 수술 후 한 달 이후부터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남성수술재료 시장현황

구분	제품명	회사	특징
동종이식	알로덤	알로라이프	미국 LifeCell 社 제품으로 세계최초 인체 피부 이식재 제품
	슈어덤	한스바이오메드	국내 최초 피부이식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 시장에서 크게 각광 받고 있음.
	라지덤	CG바이오	무균제품으로 물성이 좋음.
	메가덤(express)	L&C 바이오	국내에서 가장 늦게 개발되었으나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에서 매출 확대 증가
이종이식	네이처더마	한스바이오메드	돼지진피 조직
	메가덤(ULTRA)	L&C 바이오	돼지진피로 가격이 동종에 비해 저렴함.
	씨지멘드	TEI Biosciences	미국 소의 진피
	라이오플란트	비브라운	뉴질랜드 소의 심근막



제조사 소개

한스바이오메드(주)

한스바이오메드(주)는 피부와 뼈 등 인체조직 제품을 연구·생산하는 기업으로 아시아 최초, 인체피부 및 뼈 이식재 제품을 상용화하는데 성공. 미국 FDA 등록은 물론 국내 식품의약품 전청으로부터 국내 1호로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았다. 또 지난 2009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되는 쾌거를 이뤘다. 식약청으로부터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Allograft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국내법을 감안하면 한스바이오메드(주)는 조직은행 1호로 국내 유일의 피부 이식재 선두 주자임이 확실하다. 아시아 최대규모의 피부 이식재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갖춘 조직공학연구소를 대덕연구단지에 설립함으로써 양질의 골 이식제품들을 적시에 공급하고 있다. 또 바이오벤처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계일류상품(산업자원부 주관)기업”으로 선정돼 아시아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피앤씨씨지텍”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제품의 특징

- SureDerm[®] 자체가 환자자신의 자연조직의 일부가 되며 건강하게 생착됩니다.
- 세포성 면역반응의 표적인 항원성을 제거하였으므로 거부반응(염증)이 없습니다.
- 항원반응이 없으므로 피부테스트가 필요없습니다.
- 원하는 두께로 접거나 말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utograft/ Xenograft에 비해 재 흡수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 자체탄성이 15%정도로 신체 어느 부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삼차원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생체 친화성이 좋아 수축이 적고
- 탄성과 재구력이 뛰어납니다.
- 단 한 차례의 수술로 모든 재건이 가능합니다.
- 완전히 생착되고 나면 이물감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 SureDerm[®]은 두께에 따라 10(0.18~0.59mm), 20(0.6~0.99mm), 30(1~0.39mm), 40(0.4~1.79mm), 50(1.8~2.29mm), 51(2.30~2.99mm), 52(3.0~3.49mm), 53(3.5mm이상)으로 나뉘며, 1cm(가로)X1cm(세로) 부터 7x18(cm)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제공한다. 때문에 환부크기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 한스바이오메드 SureDerm[®]

여의봉 단상 (斷想)

글_홍영균 변호사



홍영균 변호사

법률사무소 힐링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전문 변호사이다.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자문 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현재 의료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경제TV <홍영균의 TV 의료법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소비자원 자문 변호사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유기는 동양 고전이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병기인 여의봉(如意棒)은 손오공의 무기이다. 서양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도구! 여의는 '뜻대로 된다'는 의미. 여의봉은 이름 그대로 손오공 의지에 따라 자유 자재로 크기가 바뀔 수 있어서 귀 안에 보관되다가 전투시 굵게 늘어난다. 서양 고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병기! 왜 서양인은 여의봉 개념을 몰랐을까?

단상(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이기에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초적인 이유, 인종에 따른 특유의 음경 특성 때문이 아닐까? 그 크기에 대한 욕망은 동서를 막론하고 대단하지만 서양보다는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감이 결여된 남성일수록 음경확대술(여의봉 수술 또는 뺑튀기술)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연구가 연결점일 수도 있다.

여의봉 수술을 원하는 남성은 대개 성관계시 상대방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어 하거나 평상시 음경의 크기 확대로 자기 만족과 자신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한다. 실제로 성기가 작은 남성들 중에는 간혹 정신적으로 심한 열등감을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열등감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그 수술의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해도 무방하다. 다만, 여의봉 수술도 수술의 하나이고 침습적 의료행위이므로 유착 등의 합병증이나 감염, 동통, 이상 감각 등의 후유증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과 희망자의 정신적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인 관계인 저명 피부과 원장은 비오는 날에 내원해서 상담을 희망하는 여성과는 절대로 상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른바 엔피일 가능성이 높아서 두고두고 화근 덩어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뇨의학과도 다르지 않다. 특히 예민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왜소 콤플렉스 희망자라면 엔피 가능성이 증폭될 터이다.

여의봉 수술과 관련된 분쟁의 대부분은 결과 불만족과 설명의무위반이다. 불만족이야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의미가 없지만 설명의무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대법원은 “설명 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집도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상태가 왜소증에 해당되는지, 확대술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확대술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는지, 수술 이후의 유의점 등을 문서로 설명하고 그 흔적(밀줄, 동그라미)을 남겨서 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느낌이 안 좋은 환자라면 더욱 더 철저하게! 마무리하면서 드는 의문이다. 정말 배우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어서 선택하는지 궁금하다.

하부요로증상의 원인별 감별 진단과 방광내시경 소견

part II



윤하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교수

1 방광내시경의 준비

1) 방광 내시경의 종류

방광 내시경은 경성(rigid)과 연성(flexible)의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경성 내시경은 다양한 내경 사이즈가 있고 biopsy 용 forceps, injection needle, guide wire, laser fiber 등이 삽입될 수 있는 working port가 있어 방광 내 시술이나 수술에 용이하나 시술 시 요도와 방광경부의 통증이 유발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다양한 직경이 있으며 진단적 목적의 방광 내시경은 보통 30도 렌즈와 17Fr. 직경의 내시경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렌즈의 각도에 따라 보이는 부분이 다른데, 요도 내시경(urethroscope)은 0도, bladder base, anterolateral wall은 30도에서 잘 보이며, bladder dome을 집중적으로 볼 때에는 70도 렌즈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래 셋팅에서 진단 목적으로 내시경을 볼 때에는 30도 렌즈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연성 내시경은 경성 내시경에 비해 길이가 길고, working port의 구경이 좁아 방광 내 조직 검사 시 얻을 수 있는 조직 크기에 한계가 있으나, 방광 내에서 내시경이 180-220도까지 구부러질 수 있음을 이용하여 방광 전벽(anterior wall)을 포함하여 방광 안을 조사하기에 좋다.

2) 검사 준비

방광내시경의 전 과정을 무균상태(aseptic)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도와 그 주변을 광범위하게 베타딘 도포로 소독 후 멸균포를 덮어주고 검사 과정 중에도 가능한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표1] 방광 내시경 시 준비 사항

- 현재 활동성 요로감염의 유무
-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의 필요성 설명 및 동의서 받기
- 검사 부위의 멸균 소독 및 도포(pre and drape)
- 검사 전 미리 5-10mL의 lubricant-anesthetic jelly를 요도 내와 주변에 주입
- 예방적 항생제 사용
- 내시경 후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혈뇨나 방광자극 증상에 대한 설명

연성 내시경은 통증 유발이 덜하나 요도, 특히 그 입구부는 예민한 통각이 존재하는 곳이므로 가능하다면 국소마취제를 멸균 젤리에 섞거나 마취제가 포함된 젤리를 요도 내에 미리 주입하거나 여성의 경우 요도 주변에 도포하면 검사 중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내시경 검사 시 방광에 주입되는 생리식염수는 실온 상태의 것을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체온과 유사한 정도로 데워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식염수가 방광 내 갑작스럽게 주입되면서 불필요한 자극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생리식염수의 높이도 중요한데, 특히 간질성방광염이 의심되는 경우 전신 마취가 아닌 상태에서 방광 내시경은 방광 내 주입액이 충만되면서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방광 내 출혈이 생겨 시야가 혼탁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시경 시야가 흐려진다고 식염수의 고정 높이를 높여 과도하게 높은 압력으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것은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적절한 생리식염수의 고정 높이는 환자의 치골상부에서 약 80cm 이내이다.

3) 검사방법

남성의 경우 복벽에 거의 직각이 되도록 성기를 잡고 조심스럽게 fossa navicularis로 내시경을 진입하며 점막의 이상을 관찰한다. 요도로 진입하면서 요도 내 점막의 상태, 요도 내경의 상태, external sphincter, verumontanum, prostatic urethra, bladder neck을 살펴보고 방광출구의 폐색이 보인다면 prostatic urethra의 길이를 측정한다.

[표2] 방광 내시경을 할 때 보아야 할 것

- Erythema, tumors, ulcers
- Trabeculations, cellules, diverticula
- Identify both ureteral orifices - shape & location
- Document efflux of urine (clear/bloody)
- Perform retroflexed view to evaluate bladder outlet

방광 내로 진입하여 방광 후벽, 양측벽을 관찰하고 연성 내시경은 굴곡시켜 dome을 관찰할 수 있으며, 내시경을 후 굴시키면 방광경부와 전벽(anterior wall)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내시경을 바로 요도로 진입하면서 방광경부를 관찰하고 마찬가지로 방광 내부를 볼 수 있다.

내시경에 narrow band image(NBI)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일반 백색광(white light)에서 관찰하는 경우보다 병변 구분이 쉬울 수 있으나 NBI 필터 기능의 사용은 선택에 따른다.

경성(rigid) 내시경은 방광 충만을 빨리 시킬 수 있고, 방광 내 혈종이나 이물질 제거 등의 시술 시 효과적이며 washed out urinary cytology용 소변 채취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 과정 중 내시경의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동반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연성 내시경은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므로 통증이 적고 내시경을 굴곡시킴에 따라 방광벽을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방광 충만 필요시 속도가 느리고, 요세포 검사 채취는 따로 별도의 카테터를 삽입하여 강한 방광세척(forceful irrigation)을 하여야 하며, 연성 내시경에 부착되어 있는 별도의 기구 삽입 통로의 내경이 작아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표3]은 방광 내시경 시행 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가능한 합병증이다. 환자로부터 검사 동의서를 받을 때 검사 후 가능한 합병증과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설명하여 주는 것이 좋다.

[표3] 방광 내시경 시행 후 가능한 합병증

- | | |
|-----------|-----------------|
| • 요로감염 | • 방광 천공 |
| • 출혈 (혈뇨) | • 요도협착 |
| • 급성 요폐 | • 젤리 알려지 또는 부작용 |

2 방광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

다른 원인이 없는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의 경우 진단과정에서 방광 내시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방광 내시경은 감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

- 현미경적 / 육안적 혈뇨
- 하부요로증상과 함께 방광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 하부요로증상이 방광결석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방광출구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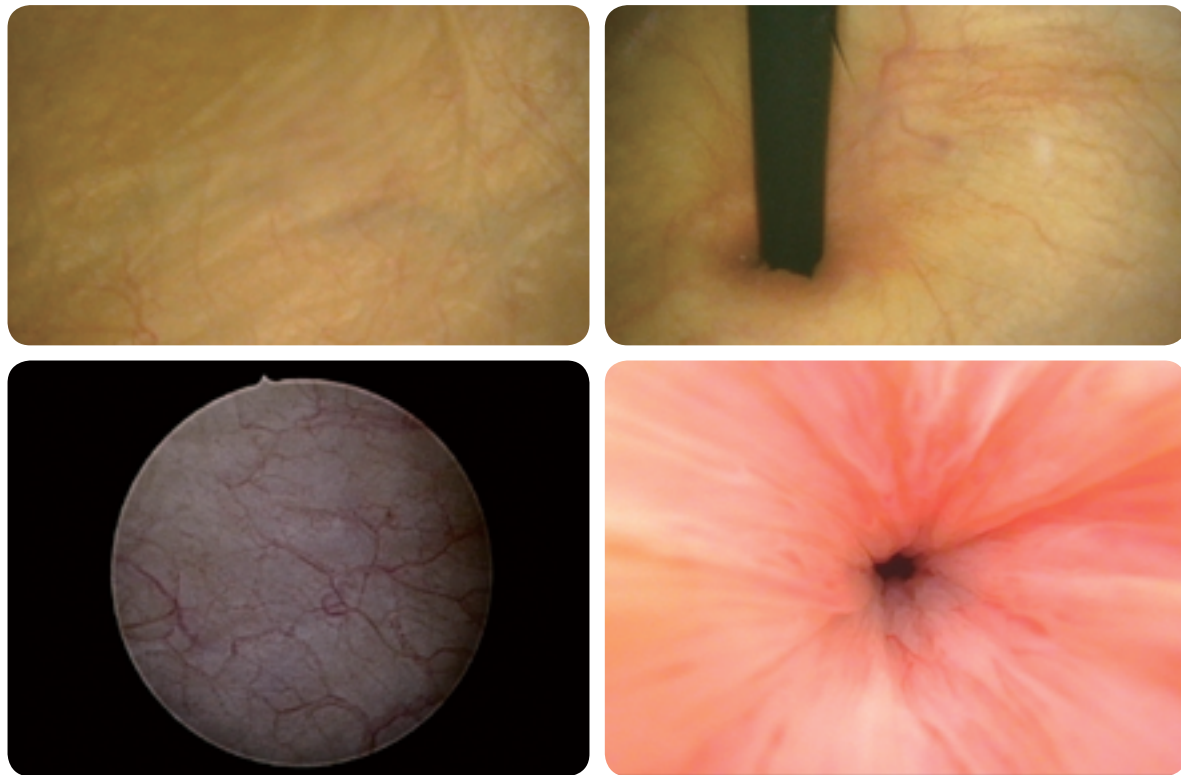
3 세부 질환 별 소견

1) 정상 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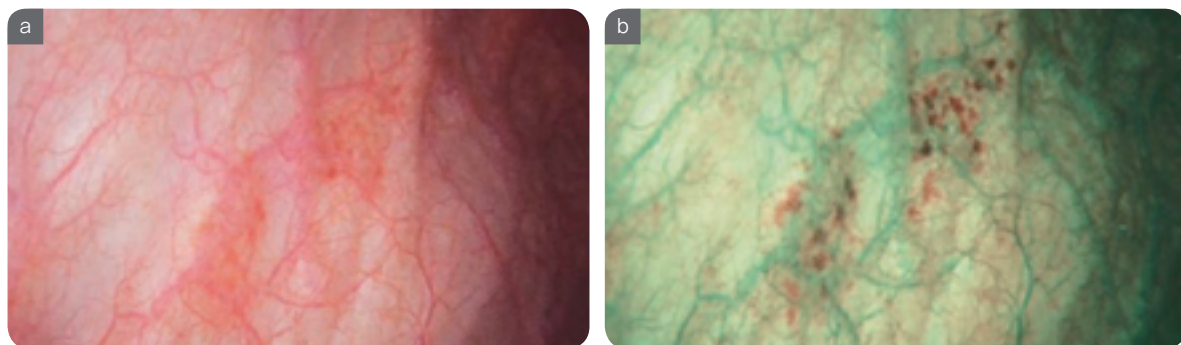
충혈이나 출혈이 없는 깨끗한 점막, 방광 육주 형성(trabeculation) 이 없으며 방광출구 폐쇄이 없다. 외요도괄약근은 잘 닫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B)는 정상 방광이나 내시경 시 일시적 점막 손상에 의해 방광 점막 출혈이 보이는 소견으로 NBI 필터를 사용하면 정상 점막과 출혈된 점막의 차이를 좀 더 뚜렷하게 볼 수있다.

▼ 그림 A) 정상 방광의 연성 방광 내시경 소견



▼ 그림 B) 연성 방광 내시경 중 점막 출혈 소견(이미지 제공-올림푸스 코리아) / 일반적인 조건(a)과 narrow band image(NBI)(b) 필터를 사용 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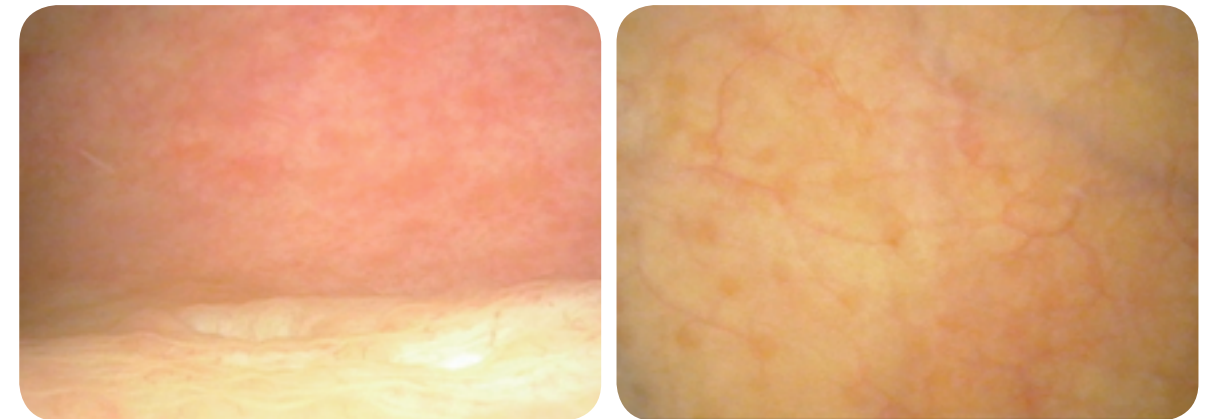


2) 만성 재발성방광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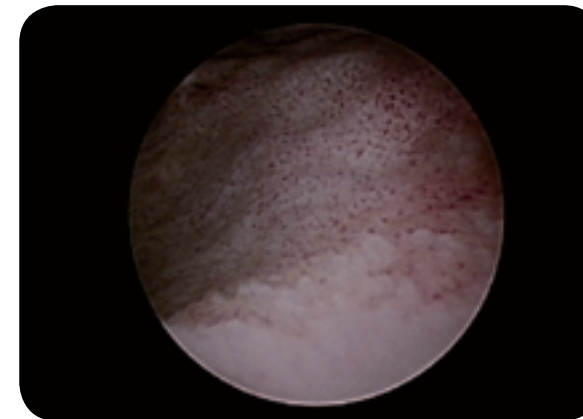
만성 재발성 방광염은 방광 내시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거나 항생 제치료 후 증상은 개선되었으나 적절한 기간이 지난 후에 추적 요검사에서 지속적으로 혈뇨가 보이거나 감염의 소견없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감별진단을 위해 방광내시경이 필요하다.

방광 내시경에서 방광 점막의 충혈(congestion), 방광 점막의 부종 및 염증성 vesicles, 삼각부(trigone)에 부종 및 백태(whitish plaques) 침착 등의 소견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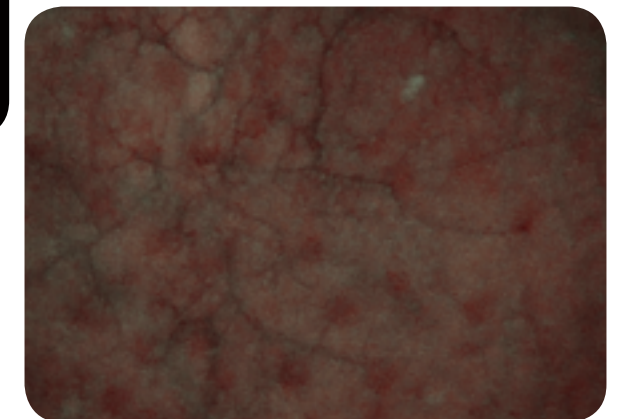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보이는 방광 점막 충혈과 inflammatory vesicles



▼ trigone – 삼각부의 부종, 백태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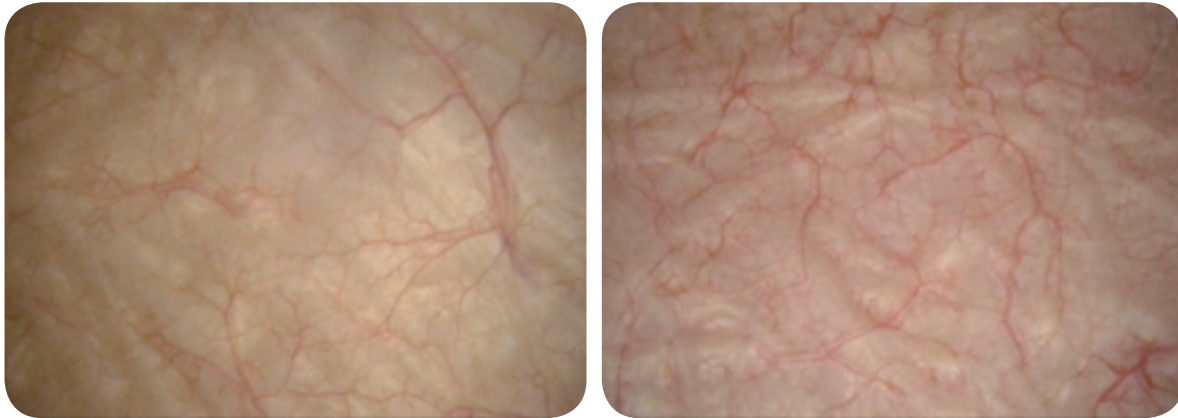
▼ congestion with NBI filter – inflammatory vesicles이 관찰된다



3) OAB

과민성 방광은 일반적으로 특징적인 방광 내시경 소견은 없다. 그러나, 심한 과반사성 방광이거나 방광출구 폐쇄에 2차적으로 과민성 방광이 동반된 경우(LUTS-BPH) 방광근의 육주 형성(trabeculation)이 관찰될 수 있다.

▼ 방광벽의 육주 형성(trabeculation)



4) IC/B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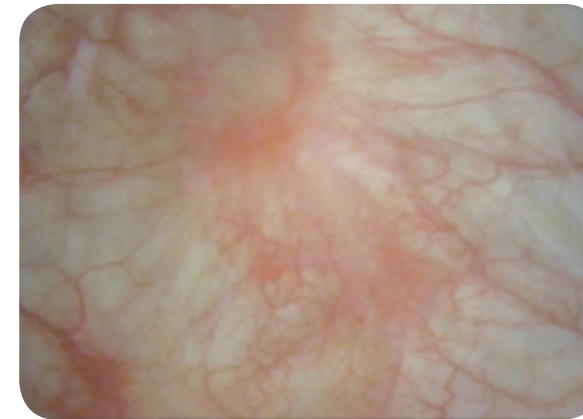
간질성 방광염이 의심되는 경우 방광 내시경은 천천히 방광을 채우면서 방광벽에 Hurner's lesion이 있는 지 아닌 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방광이 채워지면서 출혈이 일어나거나 점막 파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Hurner's lesion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광의 점상 출혈이 심해지면 glomerulation이 발생하는데, 처음 볼 때는 잘 구분되지 않으며, 방광을 한 번 충분히 채웠다가 비운 후 다시 볼 때 이런 병변은 더 잘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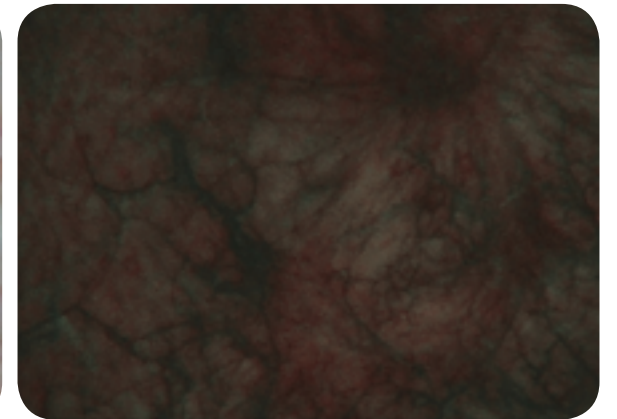
외래에서 마취하지 않고 보는 방광내시경은 간질성 방광염과 다른 방광 질환의 감별진단 정도로 이루어지며, 수압방광확장술과 같은 치료 목적의 방광 내시경은 충분히 방광을 확장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를 동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전신마취를 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IC/BPS의 특징적 내시경 소견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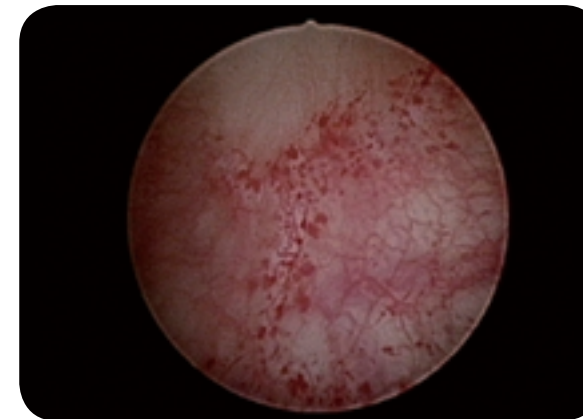
▼ Hurner's lesion



▼ Hurner's lesion with NBI filter



▼ glomerulation with mucosal cracking



비백가환

비뇨의학과 의사 백명의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이야기

비백가환(비뇨의학과 의사 백명의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이야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비뇨의학과 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수집하여 100편이 되면

비뇨의학과 홍보를 위해 단행본으로 책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원고는 비뇨의학과 의사회 사무국(urouro@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비백가환 12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김태한

태비뇨기과

A씨는 정관절제술을 한지 27년 된 올해 환갑이 된 분입니다.

환자분은 정관복원술을 원하셨고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환자의 상태는 정관복원술을 하더라도 정자가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정관복원술을 꼭 하고 싶다고 이미 여러 곳에서 제 소문을 듣고 왔으며 재차 부탁하였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 시행한 정액 검사에서는 정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도 실망했지만 석 달 뒤를 기약하며 그때 다시 검사해 보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석달 뒤 검사에선 많은 정자가 보였습니다.

정관절제술 후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정관복원 성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5년이 지나면 수술 성공률이 50%이하라고 하고, 27년이 된 환자에서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 환자에게 축하해주고 또 환자에게 여러 번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은 비뇨기과 특성상 재수술을 많이 하고 어려운 케이스의 수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그런지 쉬운 수술보다는 어려운 수술을 받으러 많이 오십니다.

이번 환자를 수술하고 약간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 자랑은 못하고 가족 대화방에 환자의 이야기를 올리고 아이들에게 ‘아빠 최고’라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문득 제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정관절제술 27년 된 환자랑 1년 된 환자랑 내가 수술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물론 27년 된 환자가 조직 손상이 더 많아 수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긴 했지만 내가 해준 것은 손상되어 막혀있는 정관을 절제해 내고 건강한 정관끼리 이어준 것에 불과한데 내가 그 환자에 정자 생산을 능력을 회복시킨 것도 아닌데,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진 내가 환자한테 감사하다는 소릴 듣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해준 환자에게 내가 감사할 일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여태까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여러 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선 전신마취 하는 여러 비뇨기과 수술들(정계정맥류, 음경만곡증, 전립선수술, 함몰음경 등)을 저는 국소마취를 한다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소아나 청소년의 진성 함몰음경 근본 교정수술은 몇몇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한데 저는 국소마취로 수술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다시 생각해 보니 국소마취로 수술이 가능했던 것은 제 수술 능력도 능력이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국소마취 하에 수술을 잘 견뎌준 환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어린이 함몰음경수술도 어린이들이 저를 믿고 국소마취 하에 수술하는 동안 잘 참고 협조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수술할 날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수술

을 잘한다고 자랑하기가 낯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맡아 하면서 아직까지 환자들과 심각하게 얼굴 붉힐 일이 없었던 것 또한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어여뻐 봐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술을 하게 될 때 환자들을 보는 제 마음은 좀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수술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그 결과는 제가 환자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니깐요.

진료실에 들어오신 환자와 가족들이 말합니다.

- 소문 듣고 왔습니다. 수술 잘 부탁 드립니다.

제가 대답합니다.

-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잘 부탁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모든 생각들이 덧없이 흘러가는 계절, 실험적으로 재해석 된 곳 한 마당이 인간의 삶과 예술의 역할에 질문을 던진다. 국악계의 실력파 남성 콰르텟, 음악그룹 나무가 선보이는 신작 '실크로드 굿'이 10월 26일과 27일, 양 이틀 간 서울남산국악당 무대에 오른다. 전통 굿의 미학을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음악과 안무로 그려낸 이 무대는 전통적 미학에 현대적 해석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이현아

깊어가는 가을, 인간 삶에 질문을 던지다

크리에이티브 대금연주자이자 2018 여우락페스티벌의 음악감독을 맡은 바 있는 이아람을 중심으로 타악 주자 황민왕, 소리꾼 여성룡, 베이스리스트 최인환 등 탁월한 솔리스트가 의기투합한 음악그룹 '나무', 나무는 한국 전통음악의 예술성과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음악을 추구해 왔다. 전통음악의 예술성과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담아 온 이들 젊은 음악가들은 전통음악은 물론 창작음악 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주목 받는 음악그룹이 '굿'이라는 전통 제의 형식을 주제로 또 하나의 색다른 무대를 마련한다.

나무의 실험적인 무대는 뜨거웠던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샤머니즘 문화와 음악의 이해'를 주제로 공개 강의와 워크숍 등으로 조명을 받았던 이들은

굿이라는 전통 제의의 의미와 미학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방향을 택했다. 네 명의 연주자 전원이 '새로운 굿거리' 극작과 작곡에 참여하며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담아낸 끝에 마침내 관객과 만나게 된 결과물이 바로 '실크로드 굿'이다.

이번 공연은 아트 콜렉티브 UBUNTU 안무가이자 크리에이티브 그룹 MOVER의 안무가인 현대무용가 김봉수의 합류로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한 김봉수는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움직임과 표현을 완성했다. UBUNTU는 융복합 예술그룹으로 안무가이자 무용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봉수의 대표적인 활동 무대다.

음악그룹 나무가 선보이는

신작 '실크로드 굿'

전통적 미학에 현대적 해석을

더한 새로운 굿

이렇게 자유분방한 활동들이 한 데 모인 '실크로드 굿'은 서울 남산국악당 마당에서부터 극장까지 이어지는 공간 전체를 무대로 활용하는 등 파격적인 형식으로 관객의 기대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관객이 직접 이동하며 공연을 관람하는 형태는 흡사 전통 마당극의 기원을 따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같은 파격적이고도 신선한 접근의 공연이 가능한 데에는 2017년부터 시작된 '남산컨템포러리-전통, 길을 묻다' 연작 공연이 바탕이 됐다. '남산을 담는 이 시대의 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작업을 선보여 온 이 프로젝트는 마침내 모든 업과 혼을 산산이 풀어내는 '굿'이라는 주제 속에서 재해석된다.

'남산컨템포러리-전통, 길을 묻다' 프로젝트는 음악그룹 나무의 '실크로드 굿'에 이어 11월 아트프로젝트 보라와 음악감독 김재덕(현대무용단 모던테이블 예술감독)이 협업하는 신작 '무악舞樂'으로 이어진다. 12월에는 격렬하고 폭발적인 라이브 공연으로 세계무대를 장악한 밴드 잠비나이와 양금의 경계를 허문 뮤지션 최휘선의 협업 '보러오세요' 공연도 마련돼 있다.

공연 | 실크로드 굿(SILKROAD GUT)

일시 | 2018. 10. 26(금요일, 오후 8시) ~ 10. 27(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남산국악당

출연 | 음악그룹 나무+김봉수



가을, 여름의 태양을 내 안에 담다

감정적·정서적으로 깊이를 더하는 계절
작렬하던 태양이 내면으로 더 깊이 물들어

골드 | GOLD

골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옐로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가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여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이다. 옐로우는 지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늘에 뜬 태양의 에너지를 갖는다. 물론 여름의 빛깔이다. 한 시절 동안 충분히 여름의 햇볕을 누렸다면, 이제 가을은 이 에너지를 숙성시키고 내면화해 나만의 지혜로 만들어야 한다.

골드는 태양빛 아래 거둔 것들을 성숙하게 변화시킨 빛깔이다. 화려하고 소란했던 여름을 지나 가을에 다다른 당신은 보다 차분하게 일상을 영위하고 말수를 줄이거나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다. 이때 골드는 당신의 친숙하고도 냉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골드는 당신이 내면의 자신과 만날 때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빛깔이다. 골드를 깊이 음미하면서 외향적 활동을 줄여나간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물론 골드는 누구나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 마치 태양이 누구나의 머리 위에 존재하듯이. 하지만 누구나 골드의 에너지를 자신의 가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이 정보로만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충분히 사색하고 학습해야 한다. 당신이 진정 자신의 가치를 직시하고 이를 내면화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충분히 옐로우의 지식을 음미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식은 충분히 성숙해져 당신만의 골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누구에게나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아마도 인간의 고유의 가치를 깨닫게 될 지도 모른다.

골드는 내면의 가치뿐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를 뜻하기도 한다. 가을은 내외적으로 한 해 동안 준비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시기이다. 당신이 내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내면화하고 있는 동안 외적으로는 관계, 물질, 정보 등 수고롭게 마련했던 외적 가치들을 평가하고 집적해야 한다. 내외적인 균형을 바로잡고 내적인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모든 평가와 기준 정립에 보다 이성적으로 임하기 위해 골드는 더할 나위 없는 동료가 되어줄 것이다.

터콰이즈 | TURQUOISE

터콰이즈는 여름에도 한 차례 언급이 된 바 있는 빛깔이다. 조금은 다른 의미로 가을의 터콰이즈도 주목할 만한 컬러이다. 여름철 활발한 창조적 활동을 지지했던 터콰이즈는 가을에 이르러 바람과 환기의 의미를 강하게 띠게 된다. 본래 남성성이 강한 빛깔인 터콰이즈는 정체된 공기를 뒤바꾸고 긍정적인 변화로 자아를 이끄는 인도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바이올렛이 가을의 우기를 의미한다면, 터콰이즈는 이따금씩 찾아오는 가을의 태풍의 의미한다.

변화의 시기인 가을은 그 변화를 얼마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가을의 빛깔들은 이 같은 변화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자아를 고양시키는 데 관여한다. 터콰이즈는 여름을 추억하며 동시에 겨울을 기대할 수 있는 밝고 명량한 빛깔이다. 또한 다소 처지고 우울할 수 있는 당신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정한 동력이 될 것이다.

올리브 | OLIVE

가을은 초록의 빛깔이 어둡게 변화하는 시기이다. 초록의 생기가 다소 가라앉은 올리브는 회복과 재생을 의미하는 빛깔로서, 옐로우를 중심으로 골드의 반대편에 있다. 시각적으로 올리브의 빛깔은 약초를 떠오르게 한다. 대체로 몸에는 좋지만 입에는 쓴 식물들이 올리브의 색깔을 띤다. 무엇보다 올리브 그 자체는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쓰디쓰기 그지없는 열매이다. 하지만 올리브는 또한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는 건강한 먹거리가 아닌가. 빛깔로서의 올리브 역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가을은 본래 생명이 있던 것들이 땅으로 떨어져 소멸되고 재생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 같은 순환적인 역할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이 올리브라 할 수 있다. 올리브는 어떤 대상이 숙성되고 독성이 제거되며 보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변화하는 데 깊이 있게 관여한다. 삶은 누구에게나 죽음으로 가는 긴 여정의 일환이다. 하지만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또 다른 삶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때 올리브는 삶과 죽음이라는 극명한 변화 안에서 강력하게 작용해 긍정적인 의미를 획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일 당신이 지난 여름으로부터 지나치게 강렬한 자극을 받아 지쳐 있는 상태라면 올리브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올렛 | VIOLET

바이올렛은 감상에 젖고 약간은 우수에 어린 기분을 나타낸다. 여름에서 겨울로 이행하는 가을은 중간중간 한 차례 대지를 적시고 지나가는 우기가 있게 마련이다. 기간에 관계 없이 이 비는 가을의 감상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정서를 보다 예민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 바이올렛은 이상과 현실이 결합돼 있는 빛깔로 인간의 정서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이를 치유하고 정신성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빛깔이다.

만일 당신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거나, 우울한 정서에 휩싸여 있다면 당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바이올렛에 끌릴 수 있다. 이럴 때는 당신의 내면을 외면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정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당신의 자아가 뒷전에 머물러 있을 때도 당신의 본능은 강렬하게 바이올렛에 이끌릴 수 있다. 만일 그런 시기가 가을이라면 당신에게는 오히려 다행한 일이다. 당신은 바이올렛에 더 가깝게 다가감으로써 오직 가을에만 할 수 있는 활동인 자아와 마주하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올렛은 의례나 기도, 명상 등의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레인보우 세라피스 센터는?

국내 최초로 영국 ASIACT 공인 오라소마 칼라시스템의 교육을 시작한 컬러심리상담전문교육기관으로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며, 상담과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 삶에 휴식과 힐링을 제공한다는 모토의 세라피스 센터는 개인의 삶과 이슈에 빛깔을 접목함으로써 개인의 고민과 의문에도 깊이 있게 접근한다.

● 이희석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여의도 증권가에 근무했다. 1999년 오라소마 프랙티서너 자격을 획득한 후 대중상담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 현재 오라소마 제품 주식회사의 공식 한국 디스트리뷰터이며, 2012년 한국컬러협회를 발족해 초대회장에 추대되었다.



지난 9월 미술품 경매시장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내 양대 옥션 중 하나인 케이옥션은 9월 경매를 통해 백남준, 천경자, 유영국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술품 경매에는 그림이나 공예작품 등 미술작품뿐 아니라 고미술품이나 오래된 유물 등을 두루 취급한다. 미술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만 한다는 편견을 가지기 쉽지만, 관심과 정보만 있다면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 긴 시간 미술품 경매에 참여해 온 멘파워비노기과 권순생 원장은 “꼭 유명작가가 아니라도 신진작가를 발견하고 작가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좋다”며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진로실에 내가 직접 그른 그림을 걸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즐거움”이라고 소개한다. [비노의학과사람들]이 케이옥션 손이천 경매사를 만나 미술품 경매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다. 글/이현아 사진/조은선

가져 볼까?
내 그림
한 점!



케이옥션 손이천 경매사에게 듣는 예술작품 경매의 모든 것

손에 땀 쥐게 하는 과정까지 “흥미롭다”



온라인 경매로 보다 쉽게

서울 강남의 케이옥션 공개 전시장에서 손이천 수석경매사를 만난 것은 8월이었다. 아직 9월 경매가 시작되기 전 온라인 경매를 위한 프리뷰 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전시장은 경매에 나서는 작품들을 사전에 전시함으로써 경매에 참여하는 이들이 직접 작품을 확인하고 둘러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일반 갤러리와 달리 동시에 다수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관람자가 원하는 관계자의 도움 속에 작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경매는 일반적인 관람과는 달리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이죠. 사전에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예요. 경매는 작가가 직접 작품을 관객에게 내놓는 단계가 아니라,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이가 2차로 작품을 시장에 내놓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품의 상태적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작품을 본다고 해서 작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예요. 여러 차례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살펴보고 거래가를 알아보다 보면 작품을 보는 안목이 생길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난 후에 직접 경매에 참여해보는 것이 좋죠.”

온라인 경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경매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더욱 다양한 금액대의 작품을 경매에서 다룰 수 있게 됐고,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덜한 신진작가들의 작품이 조명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경매에 참가하는 이들에게는 접근방법이 쉬울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작품들이 공조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온라인 방식이 낫선 이들이라도 1:1로 전화응대를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옥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경매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마감시간까지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가격을 응찰할 수 있다. 응찰에 앞서 옥션이 제시하는 시작가와 추정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작품을 낙찰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인

이상 응찰이 이뤄지면 가격 경쟁이 시작된다. 작품별로 몇회의 응찰이 진행 중인지, 최고 응찰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작품이나 작가의 이전 경매 이력도 살펴볼 수 있다.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자신의 (금액)상한선을 정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상대방 응찰자와 함께 심리전을 하면서 응찰에 임할 것인지를 시시때때로 결정하는 것이 이를 테면 경매의 묘미라 할 수 있겠죠. 긴장감을 가지면서도 손해의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미술품 경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션에서는 응찰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작품이나 작가의 이력 및 스토리를 폭넓게 제공하고,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를 드려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후회 없는 경매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림 한 점이 주는 행복감

미술품 경매가 구매가와 판매가 사이의 차액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성으로만 주목을 끄는 경향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술품 자체가 주는 행복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멘파워비노기과 권순생 원장의 경우 진료실에 걸기 위한 그림을 구입하는가 하면, 명절이나 특별한 날 선물로도 미술품을 선택하곤 한다. 경매를 통하면 생각보다 쉽고 비싸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미술품이 많다. 선물을 주는 이의 안목까지 더할 수 있으니 미술품 선물은 언제나 선물을 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준다. 본인 역시 본인이 직접 고른 미술품을 진료실이나 생활 공간에 전시한다는 만족감이 있다. 손이천 경매사는 바로 이 점이 개원의들에게 미술품 경매를 권할 만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저도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설계하는 지인들에게 미술품을 선물하곤 해요. 자영업자들이나 개원의 여러분들은 본인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을



본인이 직접 꾸밀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타인의 손에만 맡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간을 꾸민다는 것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이죠. 그 일을 일반인이 직접 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내 취향에 맞는 그림 한 점이나, 공예품 한 점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쉽게 환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취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옥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손 경매사의 귀띔이다. 경매 전 작품을 확인하는 프리뷰 과정은 일반인들에게는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전시장을 방문하면 관계자들이 동행하며 원하는 작품의 가격부터 상세한 특성들을 소개한다. 이때 작품의 소재, 색감, 작업 방식 등 키워드 하나만 제시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작품을 추천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정보들이 쌓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고유의 취향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더욱 크고 안정화된 미술품 경매

국내에 미술품 경매가 도입된 지는 20년 가량이 된다. 선발주자인 서울옥션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다가 2005년 케이옥션이 출범하면서 경쟁 체제가 됐다. 2개의 대형옥션이 이끄는 미술품 경매시장은 품목을 다양화하고,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데 더욱 주력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지난 2007년 최고점을 찍었던 미술품 경매시장은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4년 단색화를 다루는 중진작가들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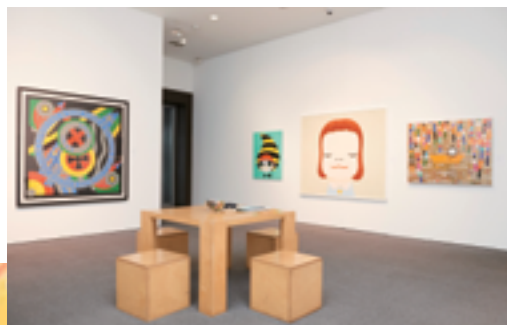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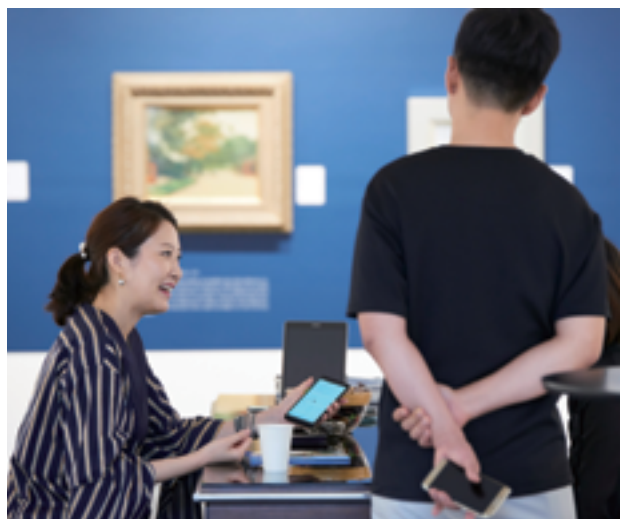
다시금 미술품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여 년 간 다양한 경매 이력이 쌓이면서 미술품 시장이 양성화되는 데 기여했어요. 경매사는 작품이나 작가의 경매된 이력들을 모두 공개하고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3년 새 많게는 20배 이상 가격이 오른 작가나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술품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이겠죠. 어떤 작품이나 작가의 결과물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지만 미술품 경매는 이들에 대한 평가를 끌어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미술작품 본연의 기능은 심미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선택하고 소유하며 타인들과 나눌 수 있는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술품 경매는 일반인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활동이에요.”

옥션들은 최근 온라인 경매를 통해 프리미엄 경매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미술품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권, 물품 등 품목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저렴한

금액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경매의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다. 이미 경매를 경험해 봤다면 오프라인 경매의 현장에 참여해보는 것도 권해볼 수 있다. 경매의 현장은 경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동적인 느낌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기회다. 미술품 경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케이옥션 사이트(<http://www.k-auction.com>)나 서울 강남구 아트타워에 마련된 전시장을 방문해 보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비뇨의학과 성병

아차 실수, 서두르면 깨끗해져요



기획 이현세 글 전영옥 그림 정준영



성병

본래의 질환명은 성매개감염병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을 이르는데, 대표적으로 임질, 매독 등이 있다. 성병은 그 종류가 30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며 원인 또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성병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없이도 전염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잠재적인 질병도 성병에 포함시킨다. 또 성적 접촉 이외에도 일부의 경우 수혈이나 정맥 주사바늘 사용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α 1A ,D Selective α -blocker Harnal[®] D¹⁾

하루날[®]디는
 α 1A와 D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배뇨, 저장 증상 모두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²⁾

1) Richardson CD et al. Prostate 1997; 33(1): 55-59
2) Lepor H. Urology 1998; 51(6): 892-900.

Harnal[®] D
(Tamsulosin · HCl)

AHA-12-A-10



IT'S TIME TO THINK
OF SOMETHING ELSE.

과민성방광 치료를 위한
최초의 β_3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



베타미가[®] 서방정 50 mg

미라베그론

A fresh start in OAB

베타미가는 새로운 기전의 OAB 치료제입니다.

- OAB 치료를 위한 최초의 β_3 -adrenoceptor agonist 입니다.¹

베타미가 50mg은 OAB 환자에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입니다.

- 베타미가 50mg은 요실금, 빈뇨, 요절박 횟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²
- OAB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환자 뿐만 아니라 효과 부족으로
이전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게도 효과적입니다.^{2,3}

베타미가 50mg은 내약성이 뛰어나고 OAB 환자의 부담을 감소시킵니다.^{2,4}

- 구갈 발현율은 위약과 비슷했습니다.²
- 유의성 있게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²

References

1. Gras J et al. Drugs Today (Barc). 2012 Jan;48(1):25-32. 2. Khullar V et al. Eur Urol. 2013 Feb;63(2):283-95.
3. Chapple CR et al. Eur Urol. 2013 Feb;63(2):296-305. 4. Basra R et al. Pharmacoeconomics 2007;25:129-42.

제14회 RAKU

다시 한 번 거제에서

전국적 폭우에도 불구하고 50명 이상 등록
꽃보다 아름다운 지심도 거닐어 더 좋구나

영남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14회 RAKU가 지난 9월 1일과 2일 양 이틀간 경상남도 거제에서 열렸다.

연일 계속된 폭우로 거제 역시 비 피해가 극심했지만,

행사가 개최된 1일은 빗줄기가 잦아 들며 행사를 도왔다.

대구, 부산 등 영남권에서 모여든 회원들은 물론,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집행부 임원진들은

잠잠해진 날씨에 안도하며 세미나에 집중했다.

글/ 이현아 사진/ 조은선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에서 모인 비뇨의학과 사람들

영남지회가 주최하는 RAKU는 올해 제14회차 행사를 포함해 총 3회의 이력을 갖고 있다. RAKU가 개막한 첫째 경주에서 열렸던 행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거제에서 개최돼 호평을 받았던 제8회 RAKU가 있다. 회원들과 동반 가족들까지 무려 1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이번 라쿠는 전년도 행사의 특징점을 살려 같은 장소인 거제삼성호텔을 일찌감치 낙점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다만 행사를 즈음해 전국을 강타한 날씨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다행히 행사일이 임박하며 폭우가 잦아들어 행사를 도왔다. 대구경북 윤여득 지회장은 “날씨에 어려움이 있어 본인이 부덕한 탓인가 했지만 각지에서 행사를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날씨 속에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며 “세미나는 물론 부대프로그램까지 무사히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 전부터 관심을 모아 온 제14회 RAKU는 거제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행사 전 진행된 만찬은 가족들과 함께 해 유쾌하고 풍성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식사 후 곧바로 이어진 세미나는 진지하고 집중력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성한기 교수가 ‘행복의 심리학’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행복의 심리학’은 자칫 일상에 매몰돼 놓칠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극대화해 만끽할 수 있는 방법과, 불행한 느낌에서 탈출해 보다 긴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성한기 교수의 특강에 이어 삼성창원병원에 재직 중인 이영숙 성균관 의대 교수의 ‘Update on Solifenacin therapy’와 윤창준 비뇨기과 의원이 준비한 ‘ESWL: How can maximize free rate?’가 이어졌다. 의사회 회원이 아니지만 대구경북지회의 요청을 수락해 대구에서부터 거제까지 방문한 이영숙 교수는 Solifenacin 치료법의 최신 경향을 전하며 플로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윤창준 원장 역시 평소 본인이 쌓아온 치료의 노하우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강연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좌장으로 연단에 선 이성원 비뇨기과 의원 이성원 원장은 “윤창준 원장님이 오늘 감기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 오셨다”며 “좋은 강의로 회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실질적인 도움 주는 라쿠 본연의 의미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날 발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이 뜨거운 화두로 도마에 올랐다. 제14회 RKAU는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만큼 긴급하게 관련 내용을 준비해 강의로 마련했다. 강의를 맡은 정한수 의무이사는 “행위등재부라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긴급하게 처리한 사안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시행이 되는 부분만큼 최대한 내용을 숙지해 피해를 부분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고시내용은 “다중그룹은 다중검사 시약을 이용해 2종 이상의 분석물질을 동시에 검사(증폭)한 경우 산정하도록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고시된 필수 분석물질은 1종, 이외 분석물질(비필수 분석물질)은 0.5종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종수를 산출하며, 산출된 종수에 해당하는 다중그룹의 수가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정한수 이사는 필수물질과 비필수분석물질을 상세히 분류한 한편, 초진 시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현장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재진 검사인 경우에는 다중코드가 아닌 단일균코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된 PCR 단일균코드를 항목별로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급여로 인정되는 코드가 없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공유하며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했다.

직접 거제를 찾은 이동수 회장은 “라쿠는 우리 지회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의료계의 최신 지견을 더욱 긴밀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는 행사”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행사가 여러 지회원 여러분께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지회의 제14회 RAKU에 이어지는 제15회 RAKU는 강원지회와 경기남부지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양 이틀간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게 된다.



청주 지역 비뇨의학과 의료인 모임

월 1회 만남으로 충전 완료

글·사진/ 이현아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 충북대병원 세미나실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마련됐다. 10여 명의 충북 지역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이날의 모임은 매월 1회 청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가져온 정례 모임으로, 특별히 최신 의료정보를 함께 나누고 진료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청주에서 열리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모임은 다른 지역보다 참여의 폭이 더 넓다.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개원의부터 대학병원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까지 소속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편하게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이날 모임은 평소와 달리 충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김원재 교수가 준비한 ‘비뇨의학과 미래의학’으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빅데이터나 AI 등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은 개념들이 완전히 정착하게 될 가까운 미래가 비뇨의학과 의료행위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다뤄 참석한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강의에 나서기 전 김 교수는 “비록 월 1회이지만 평소 다루지 못했던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진료에 대한 정보도 나눌 수 있어 유익한 모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7~8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청주 지역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의 모임은 시작부터 소속과 진료영역을 가리지 않고 비뇨의학과 전문의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돼 왔다. 그러던 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규모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등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모임의 밀도가 끈끈해지면서 다양한 영역의 의료인이 모이는 자리가 되었다. 월 1회 만남을 통해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포를 풀고 의료인으로서의 고충을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모임과 같이 함께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도 무게감이 있는 모임이다.

원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전영환피부비뇨기과 전영환 원장은 “비뇨기과 원장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지만 지역 내에서 동료들이 서로 교류하고 만남을 가짐으로써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모임이 거듭되면서 시간 상의 문제 때문에 교수님들의 참여가 뜸했었는데, 최근 다시 참여를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처럼 의미가 있는 주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청주 지역 비뇨의학과 전문의 모임은 인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변화는 있었지만 비교적 10명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며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진료 패턴을 가진 전문의들이 모인 만큼 자리가 시작되면 서로 나누게 되는 이야기의 폭도 넓고 다양하다. 이날 모임에도 10명 이상의 인근 지역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장소를 이동할 때까지 활기찬 분위기가 계속 됐다.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친 후 가지는 모임으로 피로함이 엿보일 법도 하지만,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은 되려 모임을 통해 활기와 정보를 얻는다는 귀뜸이다. 전영환 원장은 “올해는 여름 내 폭염으로 이렇다 할 사업을 벌이지는 못했지만 아직 날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늘 모임의 자리에서 남은 한 해를 뜻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논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청주 지역 비뇨의학과 모임은 올해 3번의 모임을 더 남겨두고 있다. 참여에 관심이 있다면 청주 지역 비뇨의학과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청주연세비뇨기과의원의 김용수 원장에게 문의해볼 수 있다.



대학병원부터 개원병원까지 소속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만남



지 회 를 소 개 합 니 다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부산지회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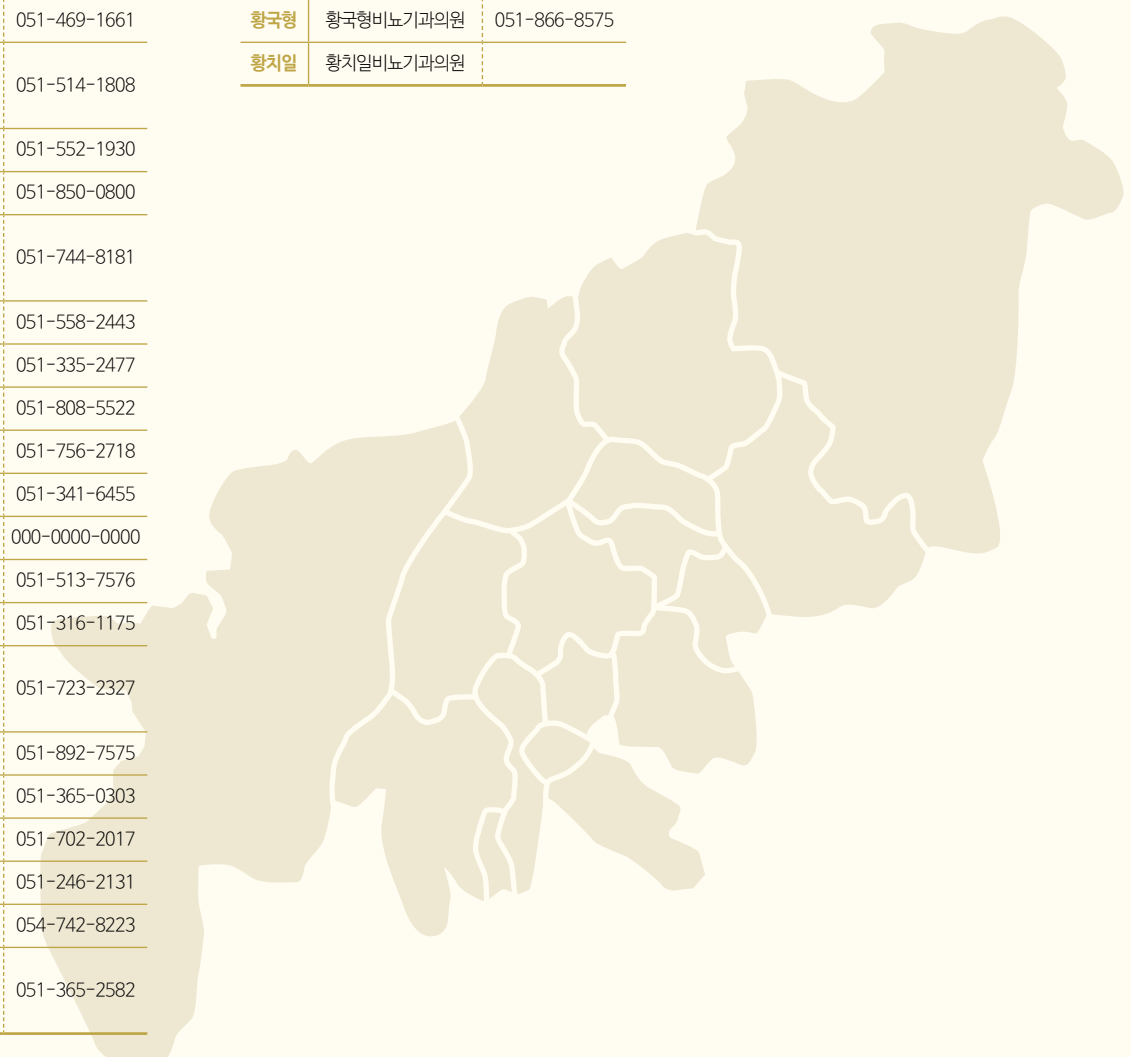
강정기	강정기비뇨기과의원	051-332-8440
강정수	월드부산의원	051-552-3500
강주석	조이비뇨기과의원	051-203-7582
강태우	드림비뇨기과의원	051-817-0011
강필문	강필비뇨의학과의원	051-757-6263
강현중	강현중비뇨기과의원	051-317-7582
강호원	멘파워비뇨기과의원	051-442-2017
공근수	부산부민병원	051-330-3216
구자현	구자현비뇨기과의원	051-625-2288
구자환	고은비뇨기과의원	051-783-7582
권용후	권용후비뇨기과의원	051-266-1551
권현영	맨앤우먼비뇨기과 의원	051-818-7337
금학조	금비뇨기과의원	051-315-3106
김경현	마노메디비뇨기과 의원	051-442-0844
김대환	강남비뇨기과의원	051-646-6464
김동성	김동성비뇨기과의원	051-894-2508
김두용	더남자비뇨기과의원	051-608-9777
김두홍	강남피부비뇨기과 의원	051-416-8009
김민수	김민수비뇨기과의원	051-782-9565
김병호	탐비뇨기과의원	051-526-5234
김상규	동재비뇨기과의원	051-625-8825
김석출	맥피부과비뇨기과 의원	051-204-8400
김성준	맨탐비뇨기과의원 부산점	051-817-4990
김세영	킹남성의원	051-852-7870
김양후	대동병원	051-550-9290
김우진	라임피부비뇨기과 의원	051-462-7737
김정렬	김정렬비뇨기과의원	051-325-8686

김정만	수비뇨기과의원	051-532-8600
김준근	선비뇨기과의원	051-336-0001
김춘곤	시원비뇨기과의원	051-255-8200
김태곤	김태곤비뇨기과의원	051-806-3384
김한석	조이비뇨기과의원	051-203-8275
김현수	시원비뇨기과의원	051-363-6337
김효기	김효기비뇨기과의원	051-809-6663
김희경	김희경비뇨기과의원	051-582-0807
류대창	류대창비뇨기과의원	051-861-1175
문상영	엘파부비뇨기과의원	051-257-9696
문장환	부산N비뇨기과의원	051-805-5825
문창호	탐연함비뇨기과의원	051-554-6888
문홍철	서울삼성피부 비뇨기과의원	051-332-8440
박규옥	박규옥비뇨기과의원	051-552-2824
박동원	박용상비뇨기과의원	051-245-0348
박민규	에일의원	051-608-0290
박부경	요편한비뇨기과의원	051-817-2582
박성진	진연세비뇨기과의원	051-818-8300
박언	박언비뇨기과의원	051-622-5474
박영수	박영수비뇨기과의원	051-291-5732
박영호	박영호비뇨기과의원	051-552-6700
박용상	박용상비뇨기과의원	051-241-5060
박윤하	박윤하비뇨기과의원	051-867-5335
박정민	SNU서울비뇨의학과 의원	051-714-1725
박종덕	박종덕비뇨기과의원	051-759-5600
박준석	박준석비뇨기과의원	051-506-6262
박준익	좋은삼선병원	051-310-0254
박창수	요편한비뇨기과의원	051-817-2582
박철보	박철보비뇨기과의원	000-0000-0000
박철보	박철보비뇨기과	051-802-7582
박치호	박치호비뇨기과의원	051-203-2737

방성익	맑은U비뇨기과의원	051-324-2481
서영훈	S비뇨기과의원	051-341-6455
서인중	에인비뇨기과의원	051-756-2718
서주형	스마일정경우 비뇨기과의원	051-744-8181
성기품	길맨비뇨기과의원	051-441-8888
성인기	성인기비뇨기과의원	051-245-7272
손가운	프라임비뇨기과의원	051-294-9119
손영진	강남비뇨기과의원	051-803-0600
손은호	다솜의원	051-637-7855
송상일	송상일비뇨기과의원	051-245-4515
송영진	강남비뇨기과의원	051-556-0386
송현옥	송비뇨기과의원	051-323-8979
신세중	신세중비뇨기과의원	051-628-8017
안재천	부강비뇨기과의원	051-747-7200
안정환	에이스비뇨기과의원	051-294-9696
양강호	굿모닝비뇨기과의원	051-646-6400
예재백	그린비뇨기과	051-261-7845
예정우	그린비뇨기과의원	051-261-7845
오승엽	세웅병원 비뇨기과	051-580-1227
옥윤철	부산메디칼비뇨기과 의원	051-668-8600
우종철	우비뇨기과의원	051-806-4445
원성호	원성호비뇨기과의원	051-809-0152
윤준호	더봔남성의원	051-201-2800
이상주	이상주비뇨기과의원	051-205-5353
이석영	제우스남성의원	051-817-8573
이성호	이성호비뇨기과의원	051-202-2020
이소리	하이맨비뇨기과의원	051-469-9200
이윤길	코넬비뇨기과의원 부산	051-816-8275
이정오	연산에스비뇨기과의원	051-867-5050
이종관	이종관비뇨기과의원	051-501-4333

이주형	N비뇨의학과의원	051-608-9777
이준호	압구정의원	051-333-9990
이창규	이창규비뇨기과의원	051-637-7582
이현성	강남비뇨기과	051-327-1300
이현태	이현태비뇨기과의원	051-753-8008
이희찬	연세비뇨기과의원	051-702-0092
임승대	에스유비뇨기과의원	051-702-8884
임주학	에스비뇨기과의원	051-341-6455
장경재	장경재비뇨기과의원	051-337-2114
장석창	부산탐비뇨기과의원	051-469-1661
장옥용	강남미르비뇨기과 의원	051-514-1808
전병주	하이맨비뇨기과의원	051-552-1930
전태경	오성병원	051-850-0800
정경우	스마일정경우 비뇨기과의원	051-744-8181
정규식	정규식비뇨기과의원	051-558-2443
정병익	정비뇨기과의원	051-335-2477
정상재	정상재비뇨기과의원	051-808-5522
정성윤	강동비뇨기과의원	051-756-2718
정성환	에스비뇨기과의원	051-341-6455
정연규	동남비뇨기과의원	000-0000-0000
정재훈	CF정훈비뇨기과의원	051-513-7576
정정윤	강남비뇨기과의원	051-316-1175
정창호	강남피부비뇨기과 의원	051-723-2327
정행기	시티비뇨기과의원	051-892-7575
조일래	조일래비뇨기과의원	051-365-0303
지창하	지창하비뇨기과의원	051-702-2017
차영일	차영일비뇨기과의원	051-246-2131
채경석	채경석비뇨기과의원	054-742-8223
천원희	덕천요편한비뇨기과 의원	051-365-2582

최동원	춘해병원	051-608-0290
최만석	강남비뇨기과의원	051-632-0006
최성호	최성호비뇨기과의원	051-256-2564
최은호	시원비뇨기과의원	051-255-8200
하정민	강남미의원	051-917-8800
허길	시원비뇨기과의원	051-852-0042
허준	양산강남비뇨기과 의원	051-532-8600
홍경수	홍경수비뇨기과의원	051-914-1425
황국형	황국형비뇨기과의원	051-866-8575
황치일	황치일비뇨기과의원	



지 회 를 소 개 합 니 다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대구지회원 명단

강일	애플비뇨기과의원	053-755-0888
강정표	영비뇨기과의원	053-653-7582
강창수	강창수비뇨기과의원	053-321-0602
강홍원	삼성피부비뇨기과의원	053-554-8275
권상택	헨파워비뇨기과의원 대구센터	053-254-7575
권옥진	권비뇨기과의원	053-954-5523
길영태	길비뇨기과의원	053-984-9611
김갑병	가톨릭비뇨기과의원	053-325-0021
김대기	경대연합비뇨기과의원	053-965-7575
김영규	안드로비뇨기과의원	053-741-9830
김보람	메디포맨남성의원	053-743-9510
김성태	김비뇨기과의원	053-654-0121
김성훈	회원 카톨릭의원	053-641-0123
김수창	김수창비뇨기과의원	053-761-5680
김영돈	김영돈비뇨기과의원	053-472-9500
김원섭	김원섭비뇨기과의원	053-782-4008
김재현	유로합동비뇨기과의원	053-267-1234
김정열	탐연합비뇨기과의원	053-653-6030
김정현	하비비뇨기과의원	053-561-0561
김정현	필피부비뇨기과의원	053-357-8575
김재희	콜맨비뇨기과의원	053-743-9500
김충남	김충남비뇨기과의원	053-257-0788
김판석	김판석비뇨기과의원	053-253-7533
김흥기	김흥기비뇨기과의원	053-561-7557
김희수	김희수비뇨기과의원	053-756-8852
남현철	원비뇨기과의원	053-425-1337
노기석	노피부비뇨기과의원	053-942-3331
노동우	미래연합비뇨기과의원	053-592-1119
모성중	모준연비뇨기과의원	053-642-2778
모영중	모영중비뇨기과의원	053-381-7200
박남일	박남일비뇨기과의원	053-752-0220
박범준	미래연합비뇨기과의원	053-592-1119
박창현	예스연합비뇨기과의원	053-626-7766

박형민	유로합동비뇨기과의원	053-264-1234
배상호	배비뇨기과의원	053-957-4576
배억수	동서비뇨기과의원	053-564-0980
배인수	한빛비뇨기과의원	053-762-7766
백운기	Dr.백피부비뇨기과의원	053-591-0014
변상권	Li비뇨기과의원	053-253-5825
변창렬	범어연합비뇨기과의원	053-751-8875
서석주	서석주비뇨기과의원	053-585-5536
서성탁	예일피부비뇨기과의원	053-425-0600
서준형	탐연합비뇨기과의원	053-653-9030
서창우	신암카톨릭비뇨기과의원	053-939-0075
서혁준	탐연합비뇨기과의원 대구	053-653-9030
손병우	선비뇨기과의원	053-638-1166
송준철	송준철비뇨기과의원	053-981-2756
신상훈	가톨릭비뇨기과의원	053-325-0021
신용규	라임피부비뇨기과의원	053-955-7600
신현철	시티비뇨기과의원	053-565-7500
안도환	안도환피부비뇨기과의원	053-582-4871
양귀철	21세기비뇨기과의원	053-628-0075
양소전	양외과의원	053-614-2542
여임동	강남남성비뇨기과의원	053-523-8877
염민호	동서비뇨기과의원	053-564-0980
오우석	경대에스비뇨기과의원	053-257-2525
오충환	오비뇨기과의원	053-651-3129
윤여득	중앙비뇨기과의원	053-639-6630
윤재식	예스연합비뇨기과의원	053-941-7766
윤창준	윤비뇨기과의원	053-639-1005
윤창한	미광비뇨기과의원	053-617-7582
이강민	수엘비뇨기과의원	053-965-2003
이광석	유로합동비뇨기과의원	053-264-1234
이동형	무성비뇨기과의원	053-983-4455
이병태	예스연합비뇨기과의원	053-626-7766
이상길	현대비뇨기과의원	053-592-6006

이성원	이성원비뇨기과의원	053-562-8300
이승엽	삼성연합비뇨기과의원	053-961-4567
이영국	애플비뇨기과의원	053-755-0888
이영진	코넬비뇨기과의원 대구	053-745-7582
이용우	남문비뇨기과의원	053-254-9289
이우근	탐연합비뇨기과의원 시지	053-793-9030
이종근	이종근비뇨기과의원	053-751-3783
이종우	탐연합비뇨기과의원 시지	053-793-9030
이준하	수피부비뇨기과의원	053-593-7337
이흥규	이흥규비뇨기과의원	053-323-4776
장덕진	그린셀의원	053-639-8875
장혁수	예스연합비뇨기과의원	053-626-7766
장혁준	장비뇨기과의원의원	053-759-9800
전기영	전기영비뇨기과의원	053-424-7996
전병주	엠허브의원	053-715-6330
전성호	원비뇨기과의원	053-425-1334
정수광	정수광비뇨기과의원	053-554-0041
조덕현	현풍경대비뇨기과의원	053-611-8700
조제현	경대연합비뇨기과의원	053-756-3888
최경진	신피부비뇨기과의원	053-423-7575
최병기	최비뇨기과의원	053-637-3330
최우석	에스비뇨기과의원	053-325-0075
최자웅	S피부비뇨기과의원	053-321-1233
한건호	한건호비뇨기과의원	053-352-6800
홍상현	성서비뇨기과의원	053-582-2727
홍창덕	홍피부비뇨기과의원	053-636-1003
신용규	라임피부비뇨기과	053-955-7600
김성훈	회원카톨릭의원	053-641-0123

지 회 를 소 개 합 니 다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경북지회원 명단

강경민	세명병원	053-819-8800
강준오	강남비뇨기과의원	054-771-9797
강현구	현피부과강비뇨기과 의원	054-277-2818
구용희	경주동산요양병원	054-770-9526
권순환	선린병원	054-245-5118
김대영	김대영비뇨기과의원	054-859-3595
김동일	메드필의원	053-812-7704
김석주	늘푸른의원	054-777-0007
김우일	김우일비뇨기과의원	054-431-1919
김정현	강남비뇨기과의원	054-534-7575
김제욱	김제욱비뇨기과의원	054-635-8290
김태진	김태진비뇨기과의원	054-555-1237
김형우	김형우비뇨기과의원	054-247-2427
두환우	지오비뇨기과의원	054-291-0075
박무근	박비뇨기과의원	054-282-4415
박문선	강남피부비뇨기과 의원	054-504-7752
박우순	박비뇨기과의원	054-456-7582
박종각	박종각비뇨기과의원	053-816-3170
배성곤	탐연합비뇨기과의원 포항	054-284-7400
서노교	서비뇨기과의원	054-331-2595
서병욱	서비뇨기과의원	054-472-9996
석노성	리세비뇨기과의원	054-476-7585
손형규	신앤손비뇨기과 의원	054-742-8223
신창식	아름뜰레의원	054-251-7575
신태수	청하요양병원	054-630-9900
심의재	드림비뇨기과의원 김천점	054-432-6900
안명환	달성비뇨기과	054-642-2985

예석준	탐비뇨기과의원 (구미)	054-473-4567
오세진	오세진비뇨기과의원	054-241-6969
오창준	경대연합비뇨기과 의원	054-331-9119
윤성일	제니스의원	054-457-9400
이상복	화인피부과 화인비뇨기과의원	054-278-8275
이수한	이수한비뇨기과의원	053-813-0080
이승규	강남피부비뇨기과 의원	054-634-6611
이재원	이재원화인의원	054-247-3456
이준엽	한솔비뇨기과의원	054-556-5123
이준영	씨엘비뇨기과의원	054-232-2119
이춘관	신앤손비뇨기과의원	054-742-8223
이현춘	대경비뇨기과의원	053-852-3334
이형일	미라클비뇨기과의원 (포항북구점)	054-256-2900
이활	이활비뇨기과의원	054-232-2255
임화수	우성비뇨기과의원	054-453-5119
장태근	장비뇨기과의원	054-434-8686
장태식	장태식비뇨기과의원	054-241-1123
전우성	우성비뇨기과의원	054-453-5119
정연호	구미인동비뇨기과 의원	054-471-0772
정인영	정인영비뇨기과의원	054-242-7001
정진관	한솔비뇨기과의원	054-556-5123
조동훈	조비뇨기과의원	054-453-2761
조승훈	경주굿모닝병원 비뇨기과	054-741-1212
차창석	차연합의원	054-373-8275
최경수	최비뇨기과의원	054-852-0881

최현곤	탐연합비뇨기과의원 포항	054-284-7400
하달봉	하달봉비뇨기과의원	054-333-0079
하승엽	한결비뇨기과의원	053-854-8864
하혁수	하비뇨기과의원	054-974-8275
현창호	신앤손비뇨기과의원	054-742-8223
홍현표	크린필피부비뇨기과 의원	054-273-7733
황성운	상주가톨릭비뇨기과 의원	054-536-4030

지 회 를 소 개 합 니 다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경남지회원 명단

강경중	김해 삼성비뇨기과 의원	055-331-4554
강선중	연세 비뇨기과 의원	055-632-0024
공도훈	더동안의원	055-800-8700
곽상인	곽비뇨기과 의원	055-284-4378
곽재진	양산비뇨기과 의원	055-367-5885
권준오	삼성시원비뇨기과 의원	055-252-1100
김공조	제니트비뇨기과 의원 통영점	055-646-2425
김동우	고성비뇨기과 의원	055-674-7575
김병진	밀양선비뇨기과 의원	055-352-7512
김병호	강남비뇨기과 의원	055-687-0882
김병환	진영삼성비뇨기과 의원	055-346-7582
김성주	베스트비뇨기과 의원	055-382-0555
김수일	장유강남비뇨기과 의원	055-313-7755
김영부	맑은샘병원	055-736-1004
김영호	창원하이맨비뇨기과 의원	055-275-1102
김익곤	김익곤비뇨기과 의원	055-743-5995
김인구	신세계비뇨기과 의원	055-757-9889
김인근	에이스비뇨기과 의원	055-547-5252
김중휘	김중휘비뇨기과 의원	055-552-2224
김주태	김주태비뇨기과 의원	02-835-3933
김철래	김피부비뇨기과 의원	055-293-6188
노재형	노의원	055-322-0550
문용철	삼성비뇨기과 의원	055-543-7525
박명승	하나비뇨기과 의원	055-314-3111
박석찬	강남비뇨기과 의원	055-387-3875
박우진	하이맨비뇨기과 의원 창원점	055-275-1102
박원찬	굿모닝비뇨기과 의원	055-312-7500
박일순	박일순비뇨기과 의원	055-281-5554
박정세	박비뇨기과 의원	055-279-0750

박진익	양산강남비뇨기과 의원	055-367-5885
박형철	굿모닝비뇨기과 의원 진주점	055-748-8282
박희곤	박비뇨기과 의원	055-745-7071
서원교	서원교피부비뇨기과 의원	055-285-5614
손문갑	신세계비뇨기과 의원	055-299-7474
신정현	신비뇨기과 의원	055-543-2024
안호준	안호준비뇨기과 의원	055-253-9080
양주현	김해중앙병원	055-330-6112
오금수	오금수비뇨기과 의원	055-255-8600
오태희	마산삼성비뇨기과 의원	055-290-6057
우중원	선비뇨기과 의원	055-253-7582
유소진	조문환피부비뇨기과 의원	055-387-2211
유진욱	준비뇨기과 의원	055-945-3137
윤석인	윤석인비뇨기과 의원	055-255-6420
이공희	제니트비뇨기과 의원 창원점	055-285-2727
이동우	갑을장유병원	055-330-3330
이동현	이동현비뇨기과 의원	055-248-1097
이성호	밀양탑비뇨기과 의원	055-351-0030
이영배	배비뇨기과 의원	055-244-0002
이우홍	이우홍비뇨기과 의원	055-246-3855
이현성	강남피부비뇨기과 의원	055-327-1300
이현	이현비뇨기과 의원	055-265-8275
임원택	연세남성비뇨기과 의원	055-222-5555
장웅기	쿨맨남성의원 창원마산점	055-256-0303
장진호	선비뇨기과 의원	055-253-7582
장혁수	수비뇨기과 의원	055-533-5599

정강섭	세인비뇨기과 의원	055-762-6275
정규덕	정규덕비뇨기과 의원	055-247-5855
정승화	정승화 비뇨기과 의원	055-742-5177
정연태	선비뇨기과 의원	055-285-7582
정운영	정비뇨기과 의원	055-281-7680
정희성	창원L비뇨기과 의원	055-255-7582
조대진	제니트비뇨기과 의원 마산삼계점	055-601-1122
조문환	조문환비뇨기과 의원	055-387-2211
조의제	조의제피부비뇨기과 의원	055-265-3749
조태윤	조비뇨기과 의원	055-632-6111
주영민	주영민비뇨기과 의원	055-634-1365
차경석	탑비뇨기과 의원	055-231-3646
최봉석	진해프라임비뇨기과 의원	055-547-8100
최영인	진영강남비뇨기과 의원	055-343-6600
최익준	닥터제이의원	055-322-2357
최재훈	진주비뇨기과 의원	055-747-1661
최진화	최진화비뇨기과 의원	055-646-7177
최형준	진주고려병원 비뇨기과	055-751-2730
하영수	하영수비뇨기과 의원	055-243-9977
하태석	하비뇨기과 의원	055-543-9115
허남배	허비뇨기과 의원	055-327-0389
허중해	허중해비뇨기과 의원	055-246-5959
현정현	현정현비뇨기과 의원	055-248-0688
홍중우	홍비뇨기과 의원	055-335-8366
홍진욱	홍진욱비뇨기과 의원	055-332-6655

지 회 를 소 개 합 니 다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울산지회원 명단

강명희	명비뇨기과 의원	052-277-7500
강문호	중앙비뇨기과 의원	052-235-6565
강성세	강남피부비뇨기과 의원	052-234-5583
김인규	울산탑비뇨기과 의원	052-261-5885
김재원	메디포남성의원	052-276-9111
김태경	태경비뇨기과 의원	052-256-8575
노민철	드림비뇨기과 의원	052-265-3642
민동석	하이맨비뇨기과 의원	052-3277-9557
박관현	서울삼성비뇨기과 의원	052-269-8575
박민영	신울산비뇨기과 의원	052-211-5753
백경석	강남의원	052-281-5583
심주명	울산강남비뇨기과 의원	052-260-5543
양도훈	양도훈비뇨기과 의원	052-263-6776
유윤철	하이맨비뇨기과 의원	052-275-1110
윤강섭	윤비뇨기과 의원	052-268-6363
이경익	행복한비뇨기과 의원	052-222-0007
이경철	서울탑비뇨기과 의원	052-276-5995
이규광	코넬비뇨기과 의원 울산	052-265-7575
이상훈	길맨비뇨기과 의원	052-261-0831
이용하	이용하비뇨기과 의원	052-251-5044
이혁준	멘파워비뇨기과 의원 울산센터	052-260-4800
이현석	강남피부비뇨기과 의원	052-261-3200
임진규	베스트비뇨기과 의원	052-3773-
장진혁	미라인의원	052-288-0120
전승훈	멘파워비뇨기과 의원 울산센터	052-260-4800
정동휘	정비뇨기과 의원	052-286-2286

조석수	조석수비뇨기과 의원	052-296-0075
조승래	미래비뇨기과 의원	052-268-0050
채인용	선비뇨기과 의원	052-269-0075
최준	평화요양병원	052-262-3229
최태수	미비뇨기과 의원	052-288-3550
하상태	경상비뇨기과 의원	052-245-7473
하성현	경상비뇨기과 의원	052-245-5488
황준승	강남비뇨기과 의원	052-234-5583

비뇨의학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비뇨의학과사람들 애독자 BIG EVENT

비뇨의학과사람들은 독자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애독자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연말, 추첨을 통해 아래의 준비된 소정의 경품을 증정합니다.

1) 참여방법

- 글, 사진 등 콘텐츠를 보내주세요.
- 비뇨의학과사람들을 소장하시고, 이를 자유로운
형식의 기록으로 보내주세요.(사진, 독자 소감 등)

2) 경품

- 1등**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1명)
- 2등**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1명)
- 3등** 잠실의료기 진료용 피부확대경 (3명)



- 콘텐츠 접수는 상시 가능합니다.
- 비뇨의학과사람들을 소장하신 기록은 연간 발행된 책자를 모두 보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경품 추첨 시기는 추후 지면으로 안내합니다.

보내실 곳

자세한 내용은 비뇨의학과사람들 간행위원회 혹은 제작사인 ㈜메디컬파트너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554-0194 • 전화 : 02-554-0193 • 이메일 : ha.lee@mpress.kr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33 대우디오빌플러스 1127호(메디컬파트너스)

* 비뇨의학과사람들에 보내주시는 콘텐츠는 출처를 밝힌 후 사용합니다.

가입 문의

1599 - 6592 | www.urocoop.com

비뇨기과의사회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모십니다



비뇨기과의사회협동조합
Cooperative Association of Korean Urologist



[조합원 혜택]



공평한 정보 제공



새로운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우선적 소개



원내사용 의료기기, 의약품
(최)저가구매



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현금 또는 마일리지 전환)



잉여금에 대한 배당



‘조합원의 날’ 참여

Betmiga[®]
mirabegron

OAB, 베타미가[®]와

Vesicare[®] 5 mg
10 mg
solifenacin

**베시케어[®]로
잠그다**

**베시케어[®]는 베타미가[®]와의 병용요법에서 임상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유일한** 항무스카린제입니다.¹**

- Solifenacin 5mg 과 Mirabegron 50mg 의 병용요법군에서 Solifenacin 단독투여에
비하여 추가적인 배뇨횟수, 요실금횟수 감소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¹
- Solifenacin과 Mirabegron의 병용요법은 내약성이 우수하였으며, 각 단독요법의 알려진
Safety Profile과 비슷하였습니다.¹



Reference 1. Marcus J. Drake et al., Eur Urol. 2016 Jul;70(1):136-45

* 자세한 안전성 정보는 제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1(청담동, 금하빌딩 6층) TEL. 02. 3448. 0504 FAX. 02. 3448. 0510
www.astellas.com/kr 고객센터 전화(수신자요금부담): 080. 920. 5388

